2022 지리산 둘레길
마을주민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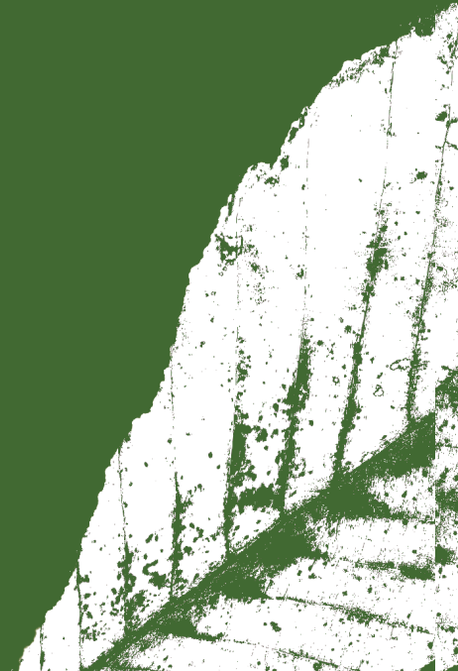
인간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며 걷다

차례

순례와 성찰 - 이상윤 대표님	08
걷기 여행 순례 미학과 영성 - 심실베스텔 신부님	14
지리산 순례길에서 만난 시 - 박두규 시인님	38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죽음 - 김인진 교무님	56
티벳사자의 서 - 상연스님	70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 오 프란치스코 수사님	74
상, 장례 의식과 죽음의 수용 - 이상윤 대표님	88
「우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 맹영선 선생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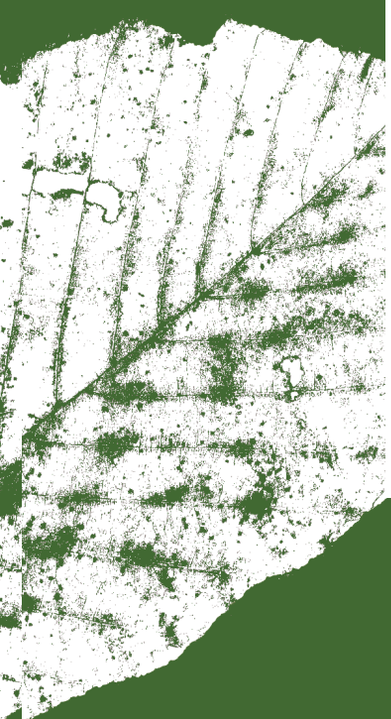
2022년 지리산둘레길 주민아카데미 프롤로그

순례와 성찰



이상윤

사단법인 '숲길' 이사장으로 지리산둘레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걷는길연합 대표로도 활동하였다. 청소년시절 그려왔던 지리산으로 귀농하게 되면서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에 참여, 시민활동가로 살고 있으나 언제나 소박한 농사꾼을 꿈꾸고 있다.



마을주민
아카데미
1차시

순례와 성찰

이상윤 대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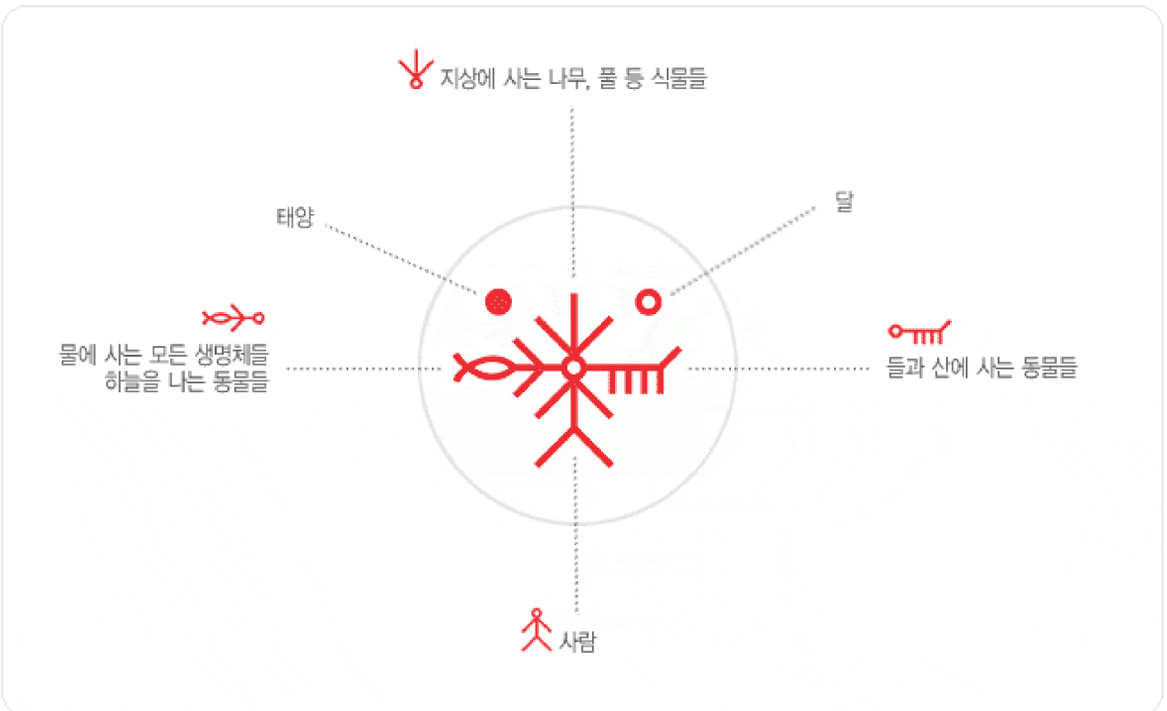
들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지구 종말과 인류위기 시대를 살아간다. 한편으로 시대의 통찰이 화두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역, 로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리산둘레길 주민들과 무엇을 나눌까? 많은 생각과 논의들이 있었다.

삶을 좀 더 깊이 들어다 보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일상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으니 주변과 얽혀 살아가다보니 집단의식이 강조된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삶의 형태들 속에 놓여있다. 만나는 관계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일필요가 없을텐데... 몸에 배거나 익숙한 것들의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늘 편가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두려움에 길들여지고, 진영에 묻혀 생각, 행동이 너그럽지 않다.



생명평화 정신과 지리산 둘레길

이 무늬는 2004년 지리산생명평화 탁발단의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평화가 되자' 는 '지리산순례'의 상징무늬이다.

생명평화탁발단(생명평화결사)이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하여 섬진강을 걸을 때 제안된 지리산순례길이 지금의 지리산둘레길을 낳았다.

지리산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삶으로 느끼고 깨닫게 해 준 지리산둘레길이 순례 10년을 맞이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리산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길들을 이어 완성된 그 길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는 걸음을 이어간다.

이 길이 이어지는 과정에 지리산권 5개시군 행정과 주민, 산림청, 지리산권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했다. 상호주체적으로 삶의 터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지역의 공공재이자 순례문화를 가꿔가는 현장이다.

지리산둘레길 벅수

'지리산둘레길'에는 가야할 길을 안내하는 벅수가 서 있다.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 누구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알에서 깨어날 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딱 하고 때려줄 때 생명은 탄생된다. 줄탁동시.

우리 모두는 줄탁동시, 그런 관계를 맺고 산다.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려는 맘이 있다면 세상은 평화롭다.

강좌 개괄

2022년 '지리산둘레길'에서 나누는 우리 이야기는 삶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순례문화

정말 궁금하다. 인류에게 있어서 순례란? 동서양 두루 쓰이는 순례는 종교적이었으나 지금은 보편적이자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는 다양하다. 숲길을 걸은 시인에게 시가 나오고 음악가에게 음악을 선물한다. 지친 이들은 휴식을 얻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찾는다. 순례와 걷기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걷기만 순례의 수단이 아니다. 삶이 순례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생사관

동서양의 사생관에 하여 알아본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틴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에서 승정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행렬 뒤에서 노예에게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 외치게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라. 너도 언젠가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 한다.

나바호 인디언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한 사회가 어떤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지구촌 곳곳이 물질의 욕망에 극대화되어 있지만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삶의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지금 지리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연의 순환질서와 견주어 볼 때 공동선을 이룰 삶의 태도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나 알음알이도 많이 연구 되었다. 또한 임종을 지켜본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삶을 마치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다를 것이다.

-지리산 둘레길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의 작품에 표현된 생사관을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쉽지 않았다. 찰라의 표현들이 현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고 작위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문학작품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웠다.

-사후 세계

망자의 재생. 장례는 결국 그 사회가 인식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 티벳 사자의 서를 중심으로 사후 세계를 다뤄본다. 밀교의 전통, 이 기도문으로 망자를 밝은 세상으로 인도된다는 믿음의 49일 동안 이뤄지는 기도문. 한번쯤 사후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종교적 전통에 따라 천국, 지옥은 오래된 인류의 언어. 지금을 사는 각자의 행동마저 지배당하는 사후 세계가 존재할까?

-거대한 탄생,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물질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것이 다인가.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탄생의 비밀은 풀릴까. 유전자에 따라 종으로 진화하고 이어가는 세계의 신비로움. 태양과 달, 별과 구름, 땅과 숲, 생명가진 모든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우주 이야기는 과학이자 신화이다.

-장례

삶이 있었던 것 같이 죽음의 의례가 있다. 동서고금의 장례문화를 넘어 지금 우리가 지향할 장례는 어떠해야 할까.

장기기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존엄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은 선택 가능한 것일까? 내가 남길 묘비명은? 유언은?

맺음말

쉽게 다뤄지지 않는 주제를 다루자니 여러 가지 신경 쓰인다.

종교적인 관념이 지배적인 사회 구성원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현실이 있는데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배당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좀 더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여정이자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지리산둘레길'에서 배움의 과정이 샘물같이 흐르길 빌고 빈다.

걷기 여행 순례의 미학과 영성

심 규재 (실베스텔)

천주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소속

경남 하동 악양 “라베르나” 수도원 거주

마을주민
아카데미
1차시

걷기 여행 순례의 미학과 영성

심실베스텔 신부님

걷기는 기본적으로 두 발을 번갈아 내딛는 이동 방식이다. 인류는 서서 두 발로 걸음으로써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진화 역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걷기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는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여행은 살던 곳, 집을 떠나 돌아다니다 떠난 곳을 돌아오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여행이 있다. 이주나 이민이 그렇다. 하늘나라로 떠나는 여행은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다양한 순례는 여행 가운데 특별한 형태이다. 종교적 의미가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 걷기와 여행과 순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영성을 찾아보았다. 걷기와 여행은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참된 친구를 사귀고 더 깊이 친교를 누리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 걷기의 기원

요즈음 걷기는 치유, 건강을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군다나 맨발 걷기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중세 유럽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길을 비롯하여 긴 순례길이 여럿 있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 뛰어난 걷기(트레킹) 길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 "론리 플래닛"을 비롯한 여행 잡지들은 세계의 훌륭한 걷기(트레킹) 길을 소개한다. 보기를 들면,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130km 14일), 파키스탄, 발토로 협곡과 케이투 베이스캠프(147km 15일), 인도 라다크 마르카 계곡(80km 6-7일), 페루, 잉카 길(33km 4-5일), 스위스, 오트 루트((200km 14일), 프랑스 코르시카, GR20(168km 15일), 호주, 오버랜드 트랙65km 6일), 뉴질랜드, 루트번(32km 3-4일),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37-90(5-9일), 인도네시아, 구눙 린자니(24km 2일), 미국, 자이언 협곡의 다양한 코스 따위.

최근 걷기를 위한 길들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길고 짧은 여러 길들을 만들어 걷기 열풍에 호응한다. 현재 우리나라 걷기 길은 2186개이다.* 코리아둘레길이 대표적이다. 4544km로 해파랑 길(동해), 남파랑 길(남해), 서해랑 길(서해), 평화의 길(비무장지대)로 이루어져 있다.**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밖에 역사적 문화적 유적, 생태 자연, 종교 따위 걷기 계획들이 선보이고 있다.

인류는 600만 년 전에 두 발로 첫 걸음을 떼었다고 한다. 인류와 원숭이의 공동 조상 가운데 일부가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차츰 두 발로 걷게 되었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두 배의 발은 네 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동 할 때 척추를 세우고 두 발로 걸으면 산소 소비는 줄이고 속도는 더 낼 수 있었다. 다만 두 발 걷기는 빠른 걷기가 아니라 오래 걷기에 어울린다. 이렇게 두 발로 걸은 이들이 인류의 조상으로 진화한다. 다시 말하여 걷기는 사람과 원숭이를 구분하는 가장 오래된 표지가 되었다. 인류는 나중에야 도구 언어 불을 사용하였다.

인류의 먼 조상은 흔히 300만-35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아프리카의 남쪽 원숭 사람"(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으로 여긴다. 이들은 뇌는 그리 크지 않았다(침팬지와 비슷한 450cc). 도구를 사용한 흔적은 없지만 두 발로 걸었던 흔적은 있다. 이 종족에 속한 루시 할머니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자취를 남겼다.*** 그는 적어도 320만 년 전에 살았다.

현생 인류(Homo sapiens)는 그 후손이다. 지금 사람은 10-12달이면 홀로 설 수 있고(2500번 이상 연습 뒤에), 일어선 뒤 2~4개월 뒤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 제대로 걷기는 네다섯 살쯤이 되면 가능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걷기의 보조 수단 또는 확장 수단이 나타났다. 신발, 지팡이, 말과 낙타, 수레와 마차.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 그리고 신분에 따라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이 달라졌다. 부자와 권력가들은 더 빠르고 편안한 수단을 더 사용하게 된다. 현대에는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구분의 의미는 흐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에 관심과 열의를 갖기

* https://www.durunubi.kr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따르면 서해랑 길은 2022년 3월, 평화의 길은 2023년 4월 완전히 열릴 예정이다. 걷기 길 정보는 www.koreatrails.or.kr을 이용할 수 있다.

*** 1974년 11월 24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하다르(Hadar) 지역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됐다. 이 화석은 적어도 318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흔적이다. 이 화석의 주인공은 유인원과 달리 직립보행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여겨졌다. 두발로 걸은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밝혀지는 않았다. 주인공의 이름은 "루시"라고 한다. 발굴단이 그날 저녁 비틀스의 노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들은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때문이다. 사실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본질이 흐려진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탈 것과 같은 걷기의 확장 수단이 걷기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며 결국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나 걷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없다.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치유시키는 약으로 언제나 사람 곁에 있을 것이다.

II. 걷기의 의미와 종류

걷기는 단순한 이동인 생활 걷기, 치유나 건강을 위한 운동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 영역을 넓혔다. 역사를 거치며 걷기에 다양한 의미가 직조된 것이다. 여러 걷기 형태들은 지리적, 시간적 지평을 향하여 펼쳐진 것으로 관찰하기, 만나기, 관계 맺기, 조화 이루기 기억하기, 그리고 멈추기와 기도하기를 돕는다. 걷기에는 목적 없는 차원도 있다. 걷기 자체가 목적이다. 놀이나 예술과 비슷하다.

1. 걷기의 의미

걷기를 통하여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쉽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걸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걷기는 또한 빼어난 소통의 방식이기도 하다. 걷기는 다른 사람과 자연과 신과 소통함을 뜻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다는 존재와 소통할 때 진정 자신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 외롭고 불안하고 병들고 괴롭다. 걷기는 사람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효과 있는 치유 방법이다. 걷기는 관념에서 벗어나 본질을 살도록 돕는다.

운동경기 분야에서 직접 걷기와 관련된 종목 말고도 여러 종목이 걷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걷기는 예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춤은 걷기에서 나왔다. “춤은 아름다운 걷기”라는 말이 있다. 직립보행이 리듬에 맞춘 걷기인 춤으로 진화되었다고 한다. 더 쉽고 즐겁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있는 리듬에 맞추는 능력, 음악 능력도 발전하고 진화한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리듬을 좋아한다. 심장 박동과 같은 내재적 리듬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람만이 춤을 춘다.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움직임을 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유나 은유이다.

걷기는 미술의 분야로도 들어갔다. “대지 예술”(Land Art, Earth Works)* 안에 걷기

* 대지 예술은 현대 미술의 한 분야이다. “지구 표면 위나 표면 자체, 또는 표면 내부에 어떤 형상을 디자인하여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다.”(위키). 1960년대부터 구미에서 나타났다. 자연과의 유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특징이다. 자연

요소가 있다. 보기를 들면, 대지 미술가 R. 롱은 예술 방법으로 걷기를 선택하였다. 예술로서 걷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걷기' 작업을 조각이라고 여긴다.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는 '걷기에서 생긴 선(A line made by walking)'이다. 한 시골 마을의 잔디밭을 수없이 걸어서 생긴 자취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가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걷기는 대지 위에 하나의 선을 남긴다. 사진으로 남은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작가가 걷기로 만든 선은 몸과 그 활동을 선명하게 표현한다(김원숙).

철학자들의 걷기는 잘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동료들은 방 안이 아니라 밖에서 산보를 하면서 철학을 강의하고 토론하였기 때문에 "산보길(Peripatos) 학파"라고 부른다. 니체 칸트 루소는 산보 철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철학자들에게 걷기는 명상과 사유의 시간이었다. 걷기는 그 열매를 기록하는 연필이었고 나누어주는 목소리였다.

걷기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 걷기는 자주 집단 행진으로 변형된다.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하며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대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집단 걷기 형태는 흔히 시위와 결합하였다. 시위행진은 힘의 전시 행위였다. 마하트마 간디는 "소금 걷기"로 역사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 1930년 영국 소금 전매 정책에 반대하여 사바르마띠 아쉬람에서 단디 해변까지, 397킬로미터를 걸었다. 1963년 마르틴 루터 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워싱톤 행진"을 조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종교인들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65일 동안 309킬로미터를 "삼보일배"로 걸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세계 시민들이 행진을 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위 활동이 있었다. 3천만 이상이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참가하였다. "뉴욕 타임스"는 이 운동에 "슈퍼 파워"라는 이름을 붙였다.

위대한 종교 스승들은 걷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붓다는 깨닫기 전에는 오랫동안 걸어서 구도 여행을 하였고, 깨달은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여행하며 진리를 전하였다.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한 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쳤다." 그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순회 설교사, 순회 치료사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자신의 소명을 기꺼이 실천하였다. 종교와 수행 차원에서 걷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덧붙여 맨발은 중요한 상징 의미를 갖는다. 거룩한 곳에서는 맨발 상태가

환경이 작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경험으로 이끈다. 작품들은 대부분 사진으로 전시된다. 크기나 규모 때문에 2미터 정도 떨어져 감상하는 예술품과 달리 대지 예술 작품은 고대 유적지나 선사 시대 작품들처럼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거나 망원경을 사용하여 감상한다. 야외에 있는 대지 예술 작품들은 장소 성격이 두드러진다. 작품들은 공간의 성질을 감상자가 걸으며 느끼도록 이끈다.

되어야 한다.* 세상에 물든 자기에서 벗어나 순수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이다. 여러 종교에서 맨발로 의식에 참여하고 걷기를 하는 관습을 간직하고 있다.

2. 종교적 걷기

여러 종교에서 걷기는 중요한 의식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명상 전통에서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로 굳어졌다. 순례는 종교적 걷기의 매우 두드러진 보기이다. 순례는 목적지에 다가가는 독특한 수단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룩함에 접근하는 형태였다. 종교적 걷기에는 예식 걷기(행렬)와 기도 걷기(명상)가 대표적이다.

1) 행렬

행렬은 고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있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여러 종교와 사회에 예식 행렬 전통을 간직한다.

(1) 불교 행렬

탁발 행렬은 신도들에게 음식을 구걸하여 얻는 예식 행렬이다. 붓다는 앉기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펼치는 동안 날마다 탁발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걸었다. 탁발은 불교 이전 인도에 있었다. 기원 전 6세기 무렵 바라문 전통과 대립하던 사문 전통의 수행자들은 탁발로 생계를 이어갔다. 붓다와 승가는 전통을 받아들여 정착시켜 수행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출가 수행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여 생계가 보장될 때 세상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탁발을 위한 걷기는 세상을 찾아가는 연결 고리다. 지금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남방 불교에서는 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탁발은 행렬은 장엄하고 거룩하다. 나이 많은 스님들이 앞에 선다. 가사를 단정히 입고 신발을 벗고 발우를 들고 행렬에 참여한다. 음식을 봉헌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의식을 갖는다. 신발을 벗고 정성을 모아 공손하게 스님 한분 한분의 발우에 넣는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다.

탑돌이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 둥글게 돌기(circumambulatio)는 고대

* 모세가 하느님 체험을 할 때 맨발은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으로 드러난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탈출 3,5).

문화에서 신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종교 관습으로 사람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걷는 동작을 일컫는다. 불교 이전 고대 인도에서는 깨달은 수행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예식(요잡 Pradakshina)이 있었다. 흔히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았다.

불교에서는 붓다에 대한 예경 예식으로 변하였다. 특히 입적 뒤 그 유골을 모신 탑을 도는 탑돌이 의식으로 보존되었다. 고대 불교의 스투파(탑) 둘레에는 돌 수 있는 길이 있었다(탑길). 이 길 바깥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탑돌이 길 안쪽이 거룩한 곳임을 나타냈다. 지역에 따라 거룩한 대상을, 또는 그 앞에서, 도는 예식은 법당 안에서도, 법당 마당에서도 하게 되었다. 이 밖에 절이나 불상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거룩한 산 카일라시도 돌기의 대상이다.

티베트에서는 탑돌이를 "코라"라고 부른다. 코라(Kora)는 "둥글게 돌기" 또는 "변혁"을 뜻하는 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코라는 친밀한 수행 방법이다. 또한 순례와 묵상 걷기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받아들인다. 티베트인들은 코라를 돌며 기도로 아침을 열고, 저녁에 다시 코라를 돌며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

오체투지(삼보일배) 행렬은 고대 인도 예법 가운데 하나인 상대방의 발에 머리를 대는 최고의 인사 동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몸의 다섯 군데(오체), 곧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를 땅에 대고(투지) 하는 절을 가리킨다(Nipaccākāra). 불교에서 받아들여 붓다와 그 가르침과 상가(승단), "세 가지 보물"에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뜻으로 간직한다. 먼저 가슴 쪽에 손바닥을 마주 대어 모으고 몸을 굽혀 무릎을 꿇는다. 다음으로 두 손을 바닥에 댄 뒤 상체를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한다. 이어서 반대 순서로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티베트에서는 몸을 완전히 뻗어서 신체의 앞면을 모두 땅에 붙이는 방식으로 행한다(전신투지). 이 동작은 정지하면서 하고 걸으면서도 한다. 순례와 같이 걸으면서 할 때는 보통 두 손에 나무나 천으로 만든 덮개를 끼고, 몸에는 고무나 천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무릎에는 보호대를 찬다. 손에 끼운 나무판은 머리 위, 머리, 가슴으로 내려오며 세 번을 부딪친다. 온 몸을 던지는 행위는 목숨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 무척 결연하고 장엄하다.

(2) 그리스도교 행렬

행렬은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동작이다. 그러나 함께 걷기가 표현하는 상징 의미가 크다. 전례 회중은 근본적으로 이집트 탈출과 성전 순례의 기억이며 새

예루살렘에서 거행하는 천상 전례의 앞당김이다. 신앙인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순례자임을 자각한다.

그리스도교 전례에는 여러 예식 행렬이 있다. 성찬례(미사)에는 네 개의 행렬이 있다. 시작 때 입당행렬, 말씀 전례에서 복음 행렬, 성찬례 시작 때 봉헌행렬, 마지막으로 영적 음식을 받는 영성체 행렬이다. 모두 예식이란 언어로 아버지 집을 향한 구원된 백성의 행렬을 표상한다.

교회 달력, 곧 전례주년의 정점인 성주간과 성삼일에는 특별한 행렬들이 있다. 성지주일(부활 전 주일)에 하는 나뭇가지 행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심을 기억하고, 성금요일에 하는 십자가 행렬은 그분의 수난을 기념한다. 파스카 성야에는 새 불을 축복하여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행렬한다. 행렬 끝에는 “파스카 찬송”을 노래하며 거룩한 밤의 뜻을 되새기며 부활을 경축한다. 그밖에 성체 행렬을 비롯하여 다른 신심 행렬도 많다.

“십자가 길”(via crucis)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신심 행사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재현한 예식이다. 전통적으로 14처(stationes)로 구분된 장면을 차례로 걸으며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고 경배한다. 14처는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골고타까지 걸었던 “고통의 길”(via dolorosa)에 들어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장소에서 십자가 형을 받은 갈바리오(무덤 성당)까지 600미터의 길이다,

본디 “십자가 길”을 걸으려면 예수님이 실제 수난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순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체 길을 성당들 안에 설치하였다. 14세기부터 공식적으로 팔레스티나 성지 수호를 맡고 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 신심을 널리 퍼뜨렸다. 십자가길 신심을 전파한 대표적인 수도자는 프란치스코회 성 레오나르도이다. 최근 교황들이 성 금요일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하는 십자가 길도 그 성인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당뿐 아니라 일반 본당과 다른 성당에도 “십자가 길”이 설치되어 있다. 프란치스코 성지 관구는 한 해 내내 금요일에는 항상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 길 신심을 실천한다.

이 신심 행사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금요일에, 특히 사순시기에 많이 한다. 보통 공동체로 하지만 개인으로도 할 수 있다.

2) 명상 걷기

걷기는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가치를 지닌다. 위파사나는 언제나 “알아차림”(사티)과 “깨어있음”(삼빠자나)을 강조한다. 잠자리에서 잠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늘 깨어 알아차림을 하라고 권고한다. 앉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호흡 관찰을 근본으로 하여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대상)을 알아차린다. 걷기도 매우 중요하다. 수행처마다 차이가 있지만 앉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통적이다. 최근 세상을 떠난 베트남 틱낫한 스님은 걷기 명상을 적극 권장하고 전파하였다. 위파사나를 바탕으로 한 “공동 걷기” 명상 형태이다. 앉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선불교 명상(좌선) 시간 사이사이에, 선방 안에서 또는 둘레에서, 포행(경행 또는 행선)을 곁들인다.

미얀마의 여러 위파사나 전통에서는 앉기 1시간, 걷기 1사간을 제안한다. 걷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몸과 마음을 살펴 긴장을 푼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의식을 옮겨가며 알아차림을 한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서서 앞을 바라본다. 두 손은 가볍게 맞잡을 수 있다. 뒷짐을 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늘어 뜨려도 된다. 걷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을 발바닥에 둔다. 바닥과 닿을 때 쉽고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발을 움직일 때에는 발을 의식한다.

한 발의 움직임을 전체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1분절). 한 발을 들어서 놓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음을 알아차린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단순하게 바닥에 닿음을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로 다른 쪽 발도 땅에 딛음을 안다. 다음에는 차츰 더 자세하게 차례로 발 닿음 전체를 알아차린다. 또 들음과 놓음을 구분하여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2분절). 보기를 들면, 들 때 발이 가벼움, 놓을 때 무거움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발을 들고, 앞으로 내고, 바닥에 놓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3분절). 내딛음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전체를 알아차린다. 더 자세하게 뒤꿈치 들기, 발 들기, 앞으로 나아가기, 내려놓기, 발바닥 누르기를 알아차린다(5분절). 더 집중을 하고자 할 때는 발의 움직임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한편, 차츰 알아차리는 힘이 자라면 발목, 무릎, 넓적다리, 허리의 움직임까지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한편, 나갈 때는 가려는 의도, 설 때 서려는 의도, 돌 때 돌려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걷기 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흐트러지고 생각들이 솟아오른다. 잠깐 멈추고 호흡에

의식을 둔 뒤 다시 걷기를 시작한다. 앉기와 마찬가지로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 인식하기, 놓기, 긴장 풀기, 미소, 다시 되돌아가기, 다시 시작하기 과정을 겪으면 좋다(아잔브람).

처음에는 일정한 거리를 되풀이하여 왕복하는 것이 좋다. 섬과 멈춤과 도는 동작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걸을 때 시선은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2-3미터 전방의 바닥을 본다. 언제나 마음에 긴장이 없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대상을 다 알아차리려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닦달하는 것이다. 마음이 긴장하면 들뜨게 된다. 마음은 자꾸 달아난다.

III. 걷기 이유와 목적

사람의 기원은 걷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두 발 걷기는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이다. 탈것을 이용한 역사는 매우 짧다.

1. 정체성 경험

걸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번뇌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속에 있는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더군다나 오래 걸으면 그런 경험은 더 뚜렷해진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신은 관념의 닦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존재와 소통의 경험이라는 걷기의 근본 의미는 걷기의 이유가 된다.

현대는 불안 사회,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속도, 소비, 정보, 소통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 불안의 뿌리는 정체성의 위기에 있다는 시각이 있다. 철학자들은 정체성의 핵심 요소는 몸으로 보기도 한다. 도시 발달과 과학 기술 발달로 몸의 활동, 특히 걷기가 차츰 사람에게서 멀어져 갔다. 현대는 "접속 시대" "사람은 접속하는 존재"(Homo connectus)로 변하였다. 정보를 찾으며 소통에 기대하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인다. 손에서 스마트 폰을 놓지 못한다. 손이 발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접속할수록 더 외롭고 불안하며 피곤하다. 몸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삶은 피상적으로 변하고 관계가 삭막해진다. 가상 세계 접속 대신 실제 얼굴을 맞대는 접촉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믿는다(Verbum caro factum est). 강생의 신비에 비추어 3세기 테르툴리아누스는 "몸은 구원의 중심이다."(Caro cardo salutis)라고 말하였다.

"걸으면 해결된다."(Solvitur ambulando). 고대 그리스 견유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412-323)의 말로 알려져 있다. 두 낱말로 운동을 부정한 제논(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의 역설(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역설)을 반박한다.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의미도 새길 수 있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당대의 P. 가상디는 이에 응답하여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Ambulo ergo sum)라고 말했다. 그는 데카르트가 마음은 몸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걷는 행위는 가상디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사람이 정체성을 찾는데 걷기가 매우 중요하고 쓸모 있다. 걷기는 우리 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있음을 경험한다."(후설). 몸이 움직일 때 그 경험은 더 뚜렷하다. 니체는 "나는 방랑하는 자이자 산에 오르는 자다" 라며 걷기를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걷기는 참된 자기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사람은 걷다가 강도, 유령, 걸인, 노인, 젊은이, 여자, 과부, 형제를 만난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만 난다"(J. 조이스).

A. 자코메티(1901~1966)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걷는 남자"(1960)라는 조각이 있다. 길고 뼈대만 있는 앙상한 모습에 거칠고 단순한 질감이 인상적이다. 작품 속 남자는 큰 보폭으로 걷고 있다. 질량이 거의 사라지고 선만 남은 모습은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같다. 작품 속의 그는 걷고 또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자코메티). 이렇게 작가는 걷기라는 인간의 다른 본질을 표현한다.

2. 명상 효과

걷기에는 명상 효과가 있다. 걷기는 현재에, 곧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걸을 때 몸과 마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된다. 한편, 걷기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지만 걷기 자체는 어떤 목적이 없다. 걷기는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가상디에 영감을 받아 네델란드 미술가 드 브리(Hermann de Vries)는 가상디 고향 딘느 레 뱅 가까이 설치 미술을 제작하였다. 그는 가파른 산기슭에 오솔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박 못을 박고, 돌을 하나 놓아두었다. 거기에 가상디의 말을 적었다(Ambulo ergo sum). 드 브리는 오솔길을 어렵게 만들어 걷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

무엇을 위해 걷지 않고 걷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기도와 전례 놀이 춤 예술 학문 활동도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걷기는 하나의 마음 훈련이다. 명상의 기초이다. 걷기는 마음 안에 떠오르는 순간의 정감이나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계속하여 흘려보내는 작용을 돕는다. 지금 여기의 자신에 집중하고 다음에 올 기대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한다.

배가 고프면 먼저 감각으로 나타난다. 배가 비어 있음을 느낀다. 기운이 떨어져 몸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진다. 그 뒤에 무엇을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고 먹기 시작한다. "몸은 머릿속 생각보다 더 예민하고 먼저 반응한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기 전에 상황을 알아차리고 반응한다고 한다. 몸은 '지금-여기-순간-존재' 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와 메시지에 둔하고 낯잡아본다. 원시시대 사람은 동물처럼 감각이 발달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생존에 쓸모가 있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생각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다. 성경에 따르면 원죄는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서 왔다(창세 3장). 선과 악, 곧 이원성의 깨달음과 거기에 빠진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분별력, 곧 이성의 발달을 뜻한다. 몸과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삶이 여러 면에서 편리해져 몸이 할 일이 더욱 줄어든다. 걷기를 비롯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든다.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는 드물어지고 있다. 읽기는 이제 영상을 보는 행위로 변하였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생각의 지배와 닦달 현상은 심해진다. 뇌는 영리하면서도 미련하다. 몸에 자극이 없어도 생각은 반응하라고 명령한다. 생각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짐을 만든다. 심지어 우리의 일과 우리 자신이 짐이 되게 한다. 우리는 생각의 명령에 따라 쉽게 화를 낸다. 생각 때문에 불만 불안이 커지고 괴로움과 병이 생긴다. 생각은 몸과 마음을 계속하여 닦달한다.

생각의 지배와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생각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 원시 시대처럼 몸과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치유의 출발이다. 호흡을 비롯한 몸 감각 그리고 느낌과 마음속 작용들을 관찰하여 생각의 지배에 짓눌리는 마음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상에 의식을 집중할수록 생각은 힘을 잃고 줄어든다. 마음은 쉬게 된다.

한편, 몸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다. 몸이 많이 움직일수록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지배를 덜 받는다. 생각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렇게

걷기는 명상 효과를 갖는다. 호흡처럼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명상 걷기뿐 아니라 다른 걷기를 통하여도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IV. 여행의 의미

흔히 "인생은 나그넷길"이라고 한다.* "인간은 걷는 존재"(homo viator)(G. 마르셀)라는 말과 같다.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나타낸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동기는 뭉뚱그려 말하면 호기심과 필요성이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냥꾼이나 수집꾼, 신석기 시대 목자들과 농부들은 더 많은 열매나 초지나 동물이나 경작지가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다. 지금도 난민, 피난민, 이주민이 그렇다. 관광객은 아름다움을 휴식을 찾아 떠난다. 우주여행도 나타났다. 환자들은 루르드를 순례하며 치유를 기도한다.

여행자는 길을 따라 나아간다. 오랫동안 땅 길을 걸었지만 차츰 바닷길 하늘 길도 이용하게 되었다.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있는 길에는 사람들의 숨결과 피땀이 배여 있다. 역사가 묻어 있고 문화가 서려 있다. 길은 사람들의 삶을 맺어주는 통로이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여행은 삶의 은유이다(E. 론키). 플루타르쿠스는 폭풍을 맞서 항해하기를 바라지 않는 군인들에게 폼페우스가 했다는 말을 전한다. "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항해는 필요하다."(Vivere non nocesse, navigare necesse est).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은 움직임 안에 펼쳐진다."***고 말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이다. 모든 여행에는 세 순간이 있다. 출발, 여정, 도착이다.

삶은 날마다 떠남으로 이루어진다. 태어남은 이미 여행이다. 첫째 여행이다. 어머니 태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기 위해 물(양수) 밖으로 나온다. 세상에 나오는 것은 탯줄을 끊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만나는 출발이다. 탯줄을 끊고 작은 굴에서 나와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가? 삶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삶은 닦달이 아니라 열정에

* 최희준 노래 "하숙생"에도 나온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 근대 저자들(T. DE BRY –M. MERIAN)은 저자들은 여행 동기를 적어도 여섯으로 꼽았다. 관용(generositas), 호기심(curiositas), 재미(voluptuositas), 유용성(utilitas), 필요성(necessitas), 운명(fatalitas). Travel Writing and Cultural Memory/Écriture du voyage et mémoire culturelle 2021, 239.

*** 삶(생명)은 운동 안에 있다. 이 문장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는 인체 기관의 생리학에 관련된 것이다. 완전하게 정지되어 있는 것은 없다.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소통, 생산, 변형 따위 중단 없는 활동이다. 운동이 생명이다. 육체적 활동으로 이해되는 운동의 중요성이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육체 운동은 일상생활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의하여 움직인다. 열정은 진리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고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소통과 친교의 어머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부추기는 힘이다.

여행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시간과 장소를 지나간다. 어떻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행에는 무엇보다 나침판이 필요하고 등대가 필요하다. 항해사는 언제나 북극성을 살핀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삶의 고랑을 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쟁기의 방향키를 한 별에 두어야 한다." 여행하는 동안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별에 연결된다. 세상 논리 가치, 저 너머에 있는 의미, 높은 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배가 북극성에 도달하지 않아도 방향을 안내받는다. 내 비밀을 비추는 별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벗어나 나를 비춘다.

여행에는 실수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성경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나온다. 탐색하는 영혼의 은유이다. 그들은 계속하여 실수를 하였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멈춘다. 큰 도시는 겉보기에 사람이 많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별을 잃었다. 헤로데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며 하느님 대신 임금을 찾는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은 인내로 가득하다. 그들은 다시 시작한다. 그리스도교 언어에 "다시"는 무엇보다 새롭게 얻는 것들을 가리킨다. 부활, 화해, 재생, 쇄신, 구속 따위. 요즈음에는 덜 하지만 한 때 "백절불굴" "철전팔기"라는 말을 자주 썼다.*

키에르코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우리 실존의 배는 선장 손에 있지 않고 요리사 마음에 달려 있다. 그는 저녁 요리가 무엇인지 확성기로 방송한다. 바다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 여행 정보들은 널려 있다. 그러나 자주 피상적, 부차적이고, 덧없다. 참된 여행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피상에서 본질로 넘어간다.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여행의 참된 목적지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언제나 자기 내면에 있다. 여행을 하면서 내면의 여행을 함께 한다. 내면의 목적지 가운데 하나는 눈이 열려 새로운 시각, 곧 사물을 보는 다른 방식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발견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M. 프루스트). 달리 말하면 변화이다. 여행할 때 자주 모든 것은 새롭게 처음과 같이 다가온다. 진지한 여행은 굳어진

* 김상범 노래, 오뚜기(sic) 인생. "오뚝 오뚝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란 듯이 일어나네.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말만 많은 양반들아 오뚜기처럼 살아가소. 빈털터리 단벌옷에 사랑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백절불굴 정신이라 어화 둥둥 내 사랑아. 내 사랑이 돌아오네. 오뚝 오뚝 오뚜기. 오뚝 오뚝 오뚜기. 오뚜기가 내 사랑일세. 오뚝 오뚝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란 듯이 일어나네.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말만 많은 양반들아 오뚜기처럼 살아가소. 빈털터리 깬 주먹에 인생길 가다가 실패를 해도 칠전팔기 정신이라 어화 둥둥 내 인생아. 내 인생이 다시 오네. 오뚝 오뚝 오뚜기. 오뚝 오뚝 오뚜기. 오뚜기가 내 인생일세."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건반사, 자동 작용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눈이 열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현실의 실패 뒤에 절망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여행을 통하여 내면의 눈이 열려 삶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된다. 절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 여행을 마친 사람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여행의 목적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친구는 자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여행자는 이제 다른 눈으로 사람과 자연과 세상을 보라는 권고를 받는다. 새로운 만남을 뜻한다. 사실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익숙함 때문에 만나는 대상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 익숙함과 속도는 우리를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수록 대상을 제대로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 더구나 만날 수는 더더욱 어렵다. 만남에서 진실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소중함이 드러난다. 느림과 멈춤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 여행에는 자주 침묵이 동반한다. 아름답고 장엄한 대자연 앞에 설 때 외로움과 피곤을 느낄 때 침묵이 찾아올 수 있다. 침묵은 늘 듣는 내 목소리 대신 다른 목소리를 듣게 만든다. 내면의 다른 내 목소리를 듣게 한다. 또한 침묵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기회이다. 자연의 참된 소리들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된다. 도자기에는 도공의 장인 정신이 배여 있고, 그림에는 화가의 영이 들어 있다. 그렇듯 길에는 그 길을 걸었던 모든 이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땅바닥에 새겨진 기억”(르 브르통)이다. 온갖 생명들이 남긴 흔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기쁨과 슬픔, 고통과 희망을 발로 적어 놓은 기록물이다. 분주하게 지나칠 때 그 길이 간직한 기억을 읽을 수 없다.

여행의 다른 목적지는 놀라움이다. 융은 “사람은 늘 보상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지루함을 느낄 때 반대, 곧 새로움을 찾는다는 뜻이다. 익숙함이 지루함을 낳는다. 여행은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을 찾고 일탈을 꿈꾼다. 새로움은 놀라움으로 이끈다. 익숙한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랄 필요가 없다.”(Non est mirandum)(루크레티우스). 그리고 굳어지고 익숙한 “개념은 우상을 만든다. 놀라움만이 창조한다.”(니사의 그레고리오). 여행을 하면서 자주 놀라움을 경험한다. 놀라움은 감추어진 본질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V. 순례

신앙인은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열망과 향수를 잠재워 줄 영원한 목적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믿는다(C. 마짜). 순례는 이 진실을 일깨워준다. "삶은 마음의 장소를 향한 순례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O. 클레망). 순례는 여행의 특별한 형태로서 종교 행위의 한 부분이다. 일상을 떠나 비일상 공간, 곧 신성하고 신령한 지역이나 장소를 찾아 성스러움에 다가가 접촉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가리킨다. 순례는 본질적으로 종교 의례에 속한다. 순례에서 관광이 떨어져 나왔다. 순례와 관광의 중간, 또는 섞인 형태도 존재한다. 종교 관광, 순례 관광이다.

1. 순례 현상

순례는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에 있는 현상이다. 선사 시대부터 있었다. 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고대 이집트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도 순례를 실천하였다. 순례는 종교 신심을 드높이고, 속죄 효과를 기대하며 복을 염원하는 측면도 있다.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집단형과 개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례지는 보통 먼 곳,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 숙식 안전 따위 문제들이 있었다. 시간과 경비가 마련되고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 고대에는 집단형태가 많았다. 현대에는 개인형도 많다. 명상형과 축제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종교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순례는 사회 문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순례길은 시대에 따라 교통 통상의 길과 연결된다. 비단길은 중국의 구법승들이 이용. 메카는 오아시스 상업 도시였다. 순례자는 문화와 정보의 전달자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슬람에게 메카 순례(하지)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다섯 기둥" 가운데 하나이다. 건강과 경제 여건이 되면 적어도 한 번 "하지"를 해야 한다. 해마다 이슬람력으로 12월 8~10일 진행된다. "작은 순례"(오무라)는 그 밖의 기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도 쿠라이시 부족을 비롯한 아랍 종족들은 메카 카으바(검은 돌 신전)를 순례하였다. 630년 메카에 들어온 무함마드는 카으바 둘레 여러 우상들을 없애고 성지로 선언하고 순례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슬람의 일치와 유대를 굳게 하려는 의도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해마다 이슬람 나라들에게 순례 인원을 배정한다. 해마다 250만 이상이 순례한다. 자기 삶 안에서 표지를 남겨야 하는 체험이다. 이러한 이상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된다. 순례를 하는 사람은 '알 하지'라는 이름을 얻는다.

힌두교에서도 순례가 있다. 힌두교의 가장 큰 순례 축제는 강변 축제인 "쿰브 멜라"(=주전자 축제)이다. "암리타"(불멸의 생명을 주는 신화의 술) 네 방울이 떨어졌다고 여기는 네 곳, 고다바리 강의 나시크, 시프라 강의 웃자인, 프라야그라지, 갠지스강의 하리드와르에서 3년마다 돌아가며 열린다. 특히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 상상 속의 사라스와티 강이 만나는 프라야그라지를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긴다. 축제 기간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와 악이 씻기고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믿는다.

불교 신자들도 중요한 장소를 순례한다. 열반경(Mahaparinibbana Sutta)은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처음 진리의 바퀴 굴림 성지 사르나트, 열반 성지 쿠시나가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불교 예술에서 "불상 없는 시대"부터 네 장소는 상징적으로 각각 연꽃, 보리수, 진리의 바퀴(법륜), 탑으로 상징되었다.* 마우리아제국 아소카 임금을 첫 순례자로 꼽는다.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붓다를 존경하는 돌기둥과 절과 탑들을 많이 지었다. 중국의 동진의 법현, 당의 삼장과 의정, 신라의 혜초도 불교 순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도 라싸에 있는 조캉 사원 순례와 카일라시 순례도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의 사대 불교 성산(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아미산), 스리랑카의 스리 마하 보디 사원,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 사원이 중요한 순례지다. 한국에서도 불교 신자들은 붓다의 사리를 모셨다는 다섯 적멸보궁(통도사, 상원사, 법흥사, 정암사, 봉정암)과 전통 사찰들을 기꺼이 순례한다.

2. 구약 성경 예루살렘 순례

순례는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 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탈출 23,17). 이렇게 과월절(파스카)과 수확절(오순절), 추수절(초막절) 세 축제를 순례 축제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강한 손을 펼치시어 자신을 이끄신 주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굳게 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유다교의 예루살렘 순례는 성경과 유다교 전통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F. 만스). 예루살렘

* 이 시대에는 "붓다의 발자국"도 붓다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순례는 실제로 한 해에 세 번 하기는 어려웠다. 아마 한두 번 이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에 사는 이들은 보통 오순절에 한 번 왔다. 성경은 남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갔다. 헬레니즘과 로마 세계의 영향을 받아 유다교는 개방적인 태도로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갈릴래아에서 출발하면 사흘이 걸린다. 유다 지방에서 온다면 하룻길이다. 순례자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함께 출발하였다. 요르단 강을 따라 걸었다.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강물에 씻을 수 있는 것도 유리한 요소였다. 순례는 공동체로 행사로 함께 걸었다. 예리코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예루살렘으로 올랐다. 순례는 "알리야"(aliyah), "오름"이라는 뜻이다.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에 영적 오름의 의미를 덧붙였다. 오름 동안 오름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다(오름 시편, 또는 순례 시편 120-134).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에 오르기 전에 예식 목욕이 의무였다(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시편 24,3). 정화 체험은 순례의 한 부분이었다. 이어서 순례자는 제물로 바칠 동물을 구입하였다.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다. 산모를 위한 제사, 죄를 씻는 제사, 친교 제사 따위. 그리고 성전세와 십일조를 바쳤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주랑 아래 장터가 있었다.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는 침묵을 배운다. 남성 현관과 제단에 가까이 갈수록 침묵은 깊어진다.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켜야 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이 만든 어떤 상도 없었다. 지성소에는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하느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계신다. 숨어 계신 하느님(Deus absconditus)이시다. 하느님 얼굴을 보려면 형제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성전임을 배운다. 돌 로 만들어진 성전은 사람이 곧 살아 있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임을 가르친다. 순례자는 성전에 있는 메노라(Menorah)를 보면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있음을 배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빛을 운반해야 한다. 친절과 자비를 배워야 한다.

3. 그리스도교 순례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심 순례가 먼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티나가 목적지였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였던 장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예배는 구약에 견주어 본질과 정신이 변하였다. 구약이 하느님 현존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나 신약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회중, 세례 받은 이들의 몸)이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성찬례와 회중이었다.

순례자들은 예수의 발자취가 서린 장소를 자기 발로 실제로 밟아보기를 원했다. 특히 수난 순간에 초점에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초기 순례 목적지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바위들"이었다. 십자가가 솟았던 갈바리오 바위와 빈 무덤 바위이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있는 다른 유적지, 베들레헴, 나자렛을 비롯한 갈릴래아 지역으로 넓어졌다. 한편, 참회 순례는 나중에 나타났다. 속죄 순례이다. 앵글로색슨, 특히 아일랜드 관습과 연결된다. 6세기부터 유럽으로 퍼졌다. 처음에는 중대한 죄를 향한 보속 형태였다. 죄인은 동냥으로 살면서 잘 보이는 죄 표시를 지니고 중단 없이 순례하도록 처벌을 받았다.

중세에는 많은 순례지들이 생겼다. 그리고 순례는 일상적인 관습으로 변하였다. 성인들의 삶, 기적 사건, 사도들과 관련된 곳들이다. 콤포스텔라의 산티아고는 야고보 사도의 무덤 장소로 여긴다. 로마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묻힌 곳이다. 로마 순례는 특히 14세기부터 유행하였다. 14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은 첫 희년을 선포했다. 순례자들은 로마로 향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 아시시도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최근에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 루르드는 순례지로 변하였다. 특히 병자들이 기꺼이 찾는다.

VI. 걷기 여행 순례의 영성

1. 탈출

길을 떠날 때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만 사용한다. 여행 경험이 쌓이면 꼭 필요한 것만을 챙겨 짐이 작아지고 가벼워진다. 특히 먼 거리를 오래 걸어야 할 때는 더 그렇다. 신발이나 지팡이 같은 보조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걷기 자체는 온전히 몸만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걷기와 여행과 순례는 모두 내려놓기, 버리기 훈련이다. 겸손을 깨닫고 욕심은 순화되어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신과 타인에 자연에 세상에 다가가 마음을 연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집을 떠나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을 찾고 일상과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구조적이고 고정적이며 경직된 틀에서 탈출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코스모스(질서)에서 빠져나와 그 이전의 카오스를 지나 무한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간다. 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리듬과 논리와 가치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다른 시간과 공간을 느끼게 하며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걷기와 여행과 순례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한다. 탈출과 해방 체험이다. B. 채트윈은 자신이

창안한 “유목민 대안”에서 “여행은 정신을 넓힐 뿐 아니라 정신의 틀을 만든다.”고 말한다. 새로운 틀, 곧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향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교 개념으로는 회개라고 부른다. 방향 전환, 새로 태어남(부활)의 체험으로 이끈다.

2. 만남

위에서 여행 목적지 가운데 하나는 벗을 사귀는 것, 곧 만남임을 밝혔다. 만남은 관계의 다른 말이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요한 1,1). 그 말씀은 추상적 언어나 원리나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 관계이다. 그래서 “한처음 관계가 있었다.”(M. 부버)라는 새김은 이유가 있다. 랍비 전통의 옛 비유는 만남을 아름답게 풀이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이마에 작은 등불(메노라)을 지니고 온다. 그 불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여행자 앞에 있는 별과 같다.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의 별들은 포개지고 다시 살아난다. 각 별은 다른 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불 위에 장작을 넣을 때처럼, 다른 것에 다가가 불꽃은 되살아나가 태운다. 만남은 빛을 만든다. 사람이 많은 시간을 만남 없이 지내면, 이마에 빛나던 그 별은 차츰 약해지고 마침내 꺼진다.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앞에 있는 별 없이 간다. 이 빛은 만남과 친교가 연료이다. 만남은 삶의 광채이다.

길은 필연적으로 만남으로 이끈다. 타인과 참된 만남을 할 기회를 가져온다. 여행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경험이다. 사제와 레위는 여행하는 동안 나타난 불운한 이를 장애물로 보고 피한다. 사실 자세히 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았다. 보았지만 만나지 않았다. 자신에 갇혀 있어 누구도 그 무엇도 볼 수 없다. 길을 가지만 길 잃은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에게 경멸받는 이들이다. 그는 보고서 연민으로 움직여 불행한 이에게 다가간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종파에 어떤 진영에 속한지 묻지 않았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세 사람 가운데 그만이 실제로 자기 자리에서 “내려간” 사람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예수의 자비와 “케노시스”(자기비움)를 가리킨다. 예수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세상에 내려오시어 사람이 되신 하느님(필리 2,5-10)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낯설고 불행한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그와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 무한의 세계로 들어간다(레비나스). 그는 자유롭고 품위 있고 행복하다.

3. 건너감

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공간과 지역의 이동, 변화를 동반한 시간의 이동, 곧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삶도 하나의 길이다. 죽음의 강을 건너 시작하는 새로운 길은 매우 신비롭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길도 있다. 거룩함을 찾아 걷는 순례의 길도 있다.

길을 걸으며 영혼은 참회하고 정화된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자신과 만나고 다름과 만나고 또 거룩함과 접촉하여 변화된다는 뜻이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다. 그는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산다.

중국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 여정을 "소를 찾는 그림"(심우도)으로 풀이한다. 도교 사상과도 연결되는 심우도는 수행자가 진리의 흔적을 발견하고 여행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다.* 진리를 찾아 깨달은 사람은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일상은 다른 일상이다. 그에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일상은 계속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신비이다. 평범하고 되풀이하는 일상에서 다시 또 다시 투신하며 남을 이롭게 한다. 진리란 모든 사람의 벗이 되어 정의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일상이 우리를 구원한다."(P. 브뤼크네르).

모든 이는 영원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삶은 언제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라고 고백한다. 모든 이에게 영원의 문은 인간 실존의 이상적 완성이다. 자기 땅, 자기 것, 자기에 익숙한 것, 편안함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을 뜻한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일흔다섯 살 때 이 소명을 깨닫고 떠났다. 그가 들은 "향하여 떠나라"는 명령은 히브어로 본디 "너에게 가라"라는 뜻으로 "너 자신을 향하여 움직여라."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 길을 떠난 자는 자신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신이 된다는 역설을 깨닫는다. 사람은 누구를 닮으라고 불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가 사라질 때 나의 독특함, 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장미는 장미가 되어야 하고 백합은 백합이 되어야 한다. 심판 날에 하느님은 왜 모세가 되지 않았냐고 묻지 않으신다. 오직 "너 자신이 되었느냐?"고 물으신다. 이슬람 신비가 루빈은 말한다. "아, 사람아, 네 자신 안을 여행하여라! 여행으로 땅은 순수한 황금으로 변한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열 장면의 그림으로 진리를 상징하는 소와 구도를 상징하는 목자를 내세워 선종 교리를 풀이한다. 우리나라에는 곽암의 그림이 많이 퍼졌다. 소를 찾아 나섬, 소 발자국을 발견, 소 발견, 소를 붙잡음, 소를 길들임,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옴, 소는 잊고 자신을 되찾음, 사람도 소도 모두 잊음, 근본으로 되돌아감, 세상에 섞여 공동체를 이룸 따위 내용이다. 한국 민족문화 대 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본디 중국 "금강경오가해"에 들어 있는 표현으로 성철 스님이 인용하여 널리 알려진 구절이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결국 여행은 사람들의 얼굴 안에서 영원을, 거룩함을, 신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성경에 엘리아 예언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자신을 박해한 아합 임금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도피한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어디서 나를 찾느냐? 나는 바람 안에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미풍 안에도 있지 않다."(1열왕 19,11-13). 나는 네가 나를 경배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올바른 여행을 하려면 장소를 찾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 하느님 나라는 자신에서 벗어나와 이웃과 연대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연대, "하느님 백성"곧 교회를 구원이라고 고백한다.

모든 길은 자신에서 탈출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라고 호소한다. 예수는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한다."(마르 4,35). "저쪽"은 우리가 있는 곳과 다른 곳을 가리키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로 오라는 초대이다. 같은 뜻을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이 힘차게 낭송한다. "가테 가테 파아라가테 파아라상가테 보디 스와하아!"(건너갔네, 건너갔네, 저쪽으로 건너갔네, 저쪽으로 완전히 건너갔네, 깨달음이여! 그렇게 되기를!)*

VI. 나가는 말

마지막 결정적 여행은 죽음이고 부활이다. 중세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덕 있는 사람은 걷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달린다.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난다." 길을 떠난 여행에는 덕과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은 험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튼튼한 신발이 된다. 세상은 가시밭길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길을 포장할 수 없다. 튼튼한 신발이 있으면 된다(산티데바). 무엇보다 사랑은 목적지를 바꾼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는 "지금 여기"가 목적지가 된다. 길이 험해도 보조수단이 거칠어도 문제가 없다. 사랑은 눈이 멀게 하고 눈을 뜨게 한다. 사랑은 죽음이고 부활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에게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다(H.C. 브레송).

* Gone, Gone, Gone over, Gone fully over. Awakened! So be it! (G. Boeree: http://www.ship.edu/~cgboeree/heartsutra.html)

참고도서

교황청 이주민과 여행자 사목 위원회, 2000년 대희년 순례 1998.

김영하, 여행의 이유 2019.

라무르 Ch., 걷기의 철학 2007.

르 브르통 D., 걷기 예찬 2002.

마짜 C., 순례와 영성. 순례와 그리스도인의 삶 2005.

솔닛 R., 걷기의 인문학 2017.

아마토 J. F., 걷기 - 인간과 세상의 대화 2006.

우석영 소병철, 걸으면 해결된다(Solvitur Ambulando) 2020.

지리산 순례길에서 만난 시

박두규 시인

1985년 남민시(南民詩) 1992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가여운 나를 위로하다, '두텁나루숲, 그대', '숲에 들다', '당몰샘', '사과꽃 편지'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生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지리산, 고라니에게 길을 묻다' 가 있다. 지역에서 '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와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 '순천작가회의' 등을 조직하여 전교조 활동과 함께 했으며 이후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공동대표, '지리산사람들' 대표, 문화신문 '지리산 人' 편집인으로 활동하였다.

오랜 마음 속 어머니, 지리산

박 두 규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스스로 고립된 만큼의 세월이

산의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해마다 수수꽃다리며

때죽나무 같은 꽃으로 무리지어 피어났다

그리하여 지리산 어느 산길에서

동자꽃 한 송이를 만나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탄식 뒤에 숨어있는

오랜 그리움을 읽어내야 한다

마을주민
아카데미
2차시

지리산 순례길에서 만난 시

박두규 시인님

지리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품어온 산이다. 그 옛날 더 이상 산 아래 세상에서 버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왔다. 절망의 끝에서 차마 버릴 수 없는 목숨 하나 이끌고 이 산에 들어왔다. 그들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 스스로의 어둠을 풀었고 산은 그들의 어둠을 품어 주었다. 지금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지리산에 온다. 세상사람 모두가 등을 돌려도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오랜 마음 속 어머니처럼 부르지 않아도 항상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품에 안아준다.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을 대로 깊어 산 빛 너울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실제로 그 품이 넓어 3개도에 걸쳐 있으며 14억 5천 6백만 평이라고 한다. 이 산 속에 나무며 짐승이며 꽃이며 벌레들 그 무수한 생명들이 하나로 어울려 있는 생명공동체가 지리산이다. 그리고 이 지리산 자락 골짜기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과 자본의 폭력과 병든 도시를 외면하고 귀촌한 사람들까지 하나의 지리산이 되어 잘 어울려 살고 있다. 그들은 산이 거느린 어머니의 품성을 배우고 숲의 모든 생명들과 하나로 어울려 산다. 인간의 이기적 산물인 자본의 풍요와 편리함에 묻히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런 이들이야말로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며 지이산智異山의 사람들이 아닌가. 지리산은 한자로는 지이산智異山으로 쓰고 지리산으로 읽는다.

지리산의 '지리' 한자 표기는 智異, 智利, 知異, 地理, 地利, 地而 등 다양하지만 현재 쓰고 있

는 지리산(智異山)이라는 이름은 쌍계사에 있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 대공탑에 보인다. 이 탑의 비문은 신라 정강왕 2년(887)에 최치원이 썼는데 '지리산(智異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조선시대에 편찬한 『고려사』에도 다른 한자 표기와 함께 '지리산(智異山)' 표기가 나온다고 하니 '智異山' 표기가 그래도 오랫동안 일관되게 쓰인 듯하다.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지리산을 문수도장으로 부르며 지혜의 문수대성이 이산에 머물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깨우치는 도량으로 삼았다 하여 지리산의 '지리'는 '大智文殊舍利菩薩'에서 智와 利를 빌려 '智利山'이라 하나 이는 후대에 불가적 입장에서 불린 것이라 보인다.

이처럼 지리산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서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게 되었다. 지리산은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불렸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흘러나온 산맥이 지리산에서 멈추었다 해서 두류(頭流)로 한다고 했다. 또 도교적 입장에서는 봉래산(蓬萊山)으로 불린 금강산과 영주산(瀛州山)으로 불린 한라산과 함께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불렀는데 신선들이 산다는 신령한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이외에도 오행사상과 함께 오악(五嶽)의 개념이 생겼는데 동서남북과 중앙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그 오악 중 지리산은 남악(南嶽)이어서 '남악산'이라고도 불렀으며, '불복산'(不伏山)이나 '반역산'(反逆山)이라는 이름은 이성계가 조선 창업의 큰 뜻을 품고 명산을 찾아 기도할 때 유독 지리산만 거부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지리산은 여순사건과 6.25전쟁을 거치며 빨치산의 활동 근거지가 되면서 토벌작전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적구산'(赤拘山)이라고도 불렀으니 지리산은 세파에 흔들리며 많은 이름들을 남기게 되었다.

그 옛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나 고승대덕의 길을 가려는 이들, 그리고 도망쳐 숨어들어온 노비,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자거리의 사람들, 혹은 동학 이후 성을 바꾸고 숨어든 자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제각기 사연 하나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온 곳이 지리산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좌우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빨치산이 되었고 하나의 조국을 꿈꾸며 목숨을 의탁한 곳이 지리산이었다. 지리산은 그렇게 어느 자식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를 품는 어머니였다.

해방 이후 지리산에는 빨치산의 역사가 강하게 새겨졌다. 그 시절, 빨갱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 산으로 올라온 노인도, 어린 조카도, 남편을 찾아 올라온 아내도, 아내 등에 업힌 간난아이도, 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두가 빨치산이 되었다. 그리고 빨치산의 역사는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다. 만델라가 27년 옥살이 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30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빨치산들이 수두룩했었다.

살을 도려내듯 추웠던 그 겨울 지리산, 토벌대가 올라오면 '나무 하나 군인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병력이 올라왔다고 한다. 토벌대와 총격전이 벌어지고 도주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돌고 돌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해서 널브러져 있는 토벌대와 동지들의 시신을 만나기도 했다. 꽁꽁 얼어붙은 죽은 동지의 입 속에 남아있던 밥덩이를 꺼내 먹으며 달려야 했던 절망의 시절이었다. 한 달이면 보름도 넘게 굶으며 배고픔과 추위 속에 쫓겨야했고 잠깐 쉬며 앉아 있다 출발하면 움직이지 않는 동지들이 있었다. 어깨를 흔들면 앉은 채로 쓰러지던 벗들, 숨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 산 아래 늙으신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떠올렸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빨치산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북으로 올라갈 수도 산을 내려갈 수도 없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그들은 희망도 절망도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지리산만이 그들을 품어주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과 북 누구 하나 그들의 생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들을 버렸을 때에도 지리산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 된 조국을 꿈꾸는 일이 그토록 서럽고 사무치는 일이었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품어준 것은 지리산뿐이었다. 그들에게 눈보라 몰아치는 지리산은 환한 미소를 짓는 늙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다.

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늘 그곳에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 속의 시간과 그리움을 데리고 산은 늘 그곳에 혼자 있다. 하지만 언제나 외로운 건 우리다.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며 외로울 때면 산은 늘 푸른 대답을 먼저 보내온다. 다만 우리가 그 오랜 침묵의 답변을 읽어내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산처럼 스스로 침묵해보지 못했고 갈등과 대립, 경쟁의 일상 속에서 산의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안아주고 품어준 산이다. 지리산에 가서 하루라도 그 숲의 숨소리에 자신을 맡기면 번잡한 현실의 고민들을 잊게 하여 스스로의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 순례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현실살이의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리산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현실 속에서 헤맬 때 스스로의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 같은 산이다. 피폐해진 몸을 살려내고 잃어버린 자애로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산이며 현실사회의 바른 역사와 삶에 대한 지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산이다. 이 모든 것이 지리산이 가진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지리산의 이러한 품성은 모든 것을 품어내고 삭여내어 새살을 만드는, 그렇게 끝없는 생명력을 분출하는데서 생겼으며 그것은 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어울림 삶'에 다름 아니다. 크고 작은 능선과 계곡들의 어울림, 그 속의 작은 숲길과 고라니와 딱따구리와 구상나무나 얼레지 같은 꽃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까지 인드라망처럼 촘촘하게 엮긴 생명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자비의 힘인 것이다. 동과 서가 어울리고 남과 북이 어울리며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세상은 이 모든 생명들의 '어울림 삶'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서 진주처럼 만들어진 결정체, 바로 사랑과 자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리산은 그런 상징이 되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지리산 순례길

박 남 준

그대 몸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무엇에 두었는가
지리산 순례 길을 걷는 다는 것은
몸 안에 한그루 푸른 나무를 숨 쉬게 하는 일이네
때로 그대 안으로 들어가며 뒤 돌아보았는가
낮은 산길과 들녘 맑은 강물을 따라
사람의 마을을 걷는 길이란
그대 지금껏 살아온 발자국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네
숲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생명의 지리산을 만나는 길
그리하여 순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대 안에 지리산을 맞이하여 모신다는 일이네
껴안아 준다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것이야
어느새 가슴이 열릴 것이네
이윽고 눈앞이 환해질 것이네
그대가 바로 나이듯 나 또한 분별을 떠나 그대이듯이
이제 그대와 내가 지리산이 되었네
이제 그대와 내가 지리산 순례길이네

길이 길을 막다

이 원 규

먼길을 걸어보면 알리라
길이 오히려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오래 걸어본 자는 알게 되리라
고속질주의 차도에 사람의 길이 막히고
사람의 길에 야생동물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그대의 마을까지
걷고 걸어서 가려면 위험천만
먼저 목숨부터 내놓아야 하나니
그대 또한 내게로 오는 길이
그러하고 그러하리라는 것을

허공의 새들에게도 길이 있고
물속의 고기들에게도 길이 있듯이
무심한 바람에게도 길이 있어
아무 절에나 들어가 아무 풍경을 울리지 않고
지상의 수많은 별들이 떠올라도
아무 십자가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달마다 천 리 길
해마다 만 리 길을 걸어보면 알리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고
종교가 없는 곳에 종교가 있고
농민과 아이들이 없는 곳에 농촌이 있고
정치인이 없는 곳에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없는 곳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고속도로에 당산나무가 쓰러지고
골프장 그린 홀 속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대형 댐의 깊은 물속에 살구꽃 지는 고향이 있나니

길이 길을 막아
그 길 위에서 목놓아 우는 이들이
어찌 생명평화의 탁발순례단뿐이랴
밥을 주면 밥을 먹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는 순례단이
지치고 아플 때마다
손짓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밤마다 머리맡에 다가앉아 우는 여인이 있었으니
노고단의 마고선녀신가
백록담의 설문대 할망이신가
여전히 맨발의 어머님이신가

마침내 걷고 걸어서
일체원융의 동그라미를 그렸나니
지리산에 그 둘레가 1천5백리인
거대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다시 한라산에 1천리 동그라미를 그렸나니

무시(無始)의 먼길을 걸어보면 알리라
길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길이 길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무종(無終)의 오랜 길을 걸어보면 알게 되리라
한걸음 또 한걸음
이보다 더 빠른 길은 이승에 없나니
발바닥이 곧 날개였다는 것을

각시붓꽃을 위한 연가

복 효 근

각시가 따라나설까 봐
오늘 산행길은 험할 텐데..... 둘러대고는
서둘러 김밥 사 들고 봄 산길 나섰습니다
허리 낭창한 젊은 여자와 이 산길 걸어도 좋겠다 생각하며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산길 오르는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산비알에
저기 저기 각시붓꽃 피어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허리가 어디 붙었나 가늠도 되지 않고
화장술도 서툴러서 촌스러운 때깔이며
장벽수정을 한대나 어쩐대나 암술 수술이 꽁꽁 감추어져
요염한 자태라곤 씻고 봐야 어디에도 없어서
벌 나비 하나 찾아주지 않는 꽃
세상에나, 우리 각시 여기까지 따라나섰습니다
세상에 내가 최고로 잘 난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 산길까지 남정네 감시하러
앵도라진 입술 쭈볏거리며 마른 풀섶에 숨어있습니다
각시붓꽃 앞에 서니 내 속생각 들킬까봐
아무도 없는 숲길에마저 괜스레 조신합니다
두렵게도 이쁜 꽃입니다
새삼 스무 살처럼 내가 깨끗합니다.

노고단

김 해 화

꽃 비우고 나면
사람

노고단 가는 길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는지
반가움 사무쳐 자주 울었네

사람 비우고 나면
또 꽃

노고단 가는 길
지리산에서는 피지 않는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움 사무쳐 목이 메었네

다시 꽃 비우고 나면
사람

깃든다는 말

김 인 호

애근히
산에 들어야만 산에 드는 것은 아니리

깃든다는 건
산에 들지 않아도 늘 산에 드는 것이리

깃든다는 건
그렇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리

깃든다, 깃든다 되뇌면
어머니 품같이 술술 잠이 올 것 같은 말

먼산주름
산과 산이 서로에게 깃들어 참 아늑하다

기억의 향연

송 태 웅

급히 머리를 감다 물이 비강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나간 장면 두엇이 얼얼한 감각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닐곱이나 되었을까
어머니와 함께 냇물에서 다슬기를 잡던 땐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을 비춰주던 맑은 냇물과
어머니가 나를 깨워
밥술 위에 조깃살점을 올려주던
그 세상이 세상의 다인 줄 알았다

스물이 넘고 서른이 넘어
나를 부르던 어머니의 음성은 멀어지고
공중목욕탕 탈의실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내들처럼
무지막지한 완력이
앳된 청년들을 붙잡아
욕조에 채운 물로
기도를 막아 죽인 이후로
물이 무서워졌다

화엄사 각황전 앞 홍매를 보러
성지순례단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역에선 시야를 가리는
미세먼지가 아우성처럼 불어오는데
그 언젠가 한때는
그 모래바람과 함께
간다라의 음영 짙은 미간이 당도하기도 했으니

이제 나도 이순이 되어
구순 넘은 어머니가
실낱처럼 가늘어진 음성을 남기고
맑은 냇물을 흘려보내던
숲속 멧비둘기의 몸으로 돌아갈 날을
지켜보고 있으니

지리산 서시

박 두 규

*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오랜 마음 속 벗처럼
부르지 않아도 항상
푸른 대답을 보내오고
그리움이 깊을 대로 깊어
산빛 너울이 아프다.

*

미친 눈보라, 갈 곳 없는 어둠
사십 년 징역을 곱게도 사는구나
물빛 하늘 얼굴들
살아서는 부둥킬 수 없었던
그리움 곁으로 가고
홀로 남아
상처 깊은 짐승처럼
우우우 웅크린
산.

*

그대
눈부신 억새꽃 바람결로 스미고
깊은 숲그늘 돌틈
철쭉으로 피어나
우리들 일상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다하도록
스스로가 다하도록 내려올 수 없어
산이 되었던 그대.

*

우리 곁을 떠나간 벗들은
저 산 되었지
헐벗어 눈 덮인 저 산.
그래, 바라던 조국 만나
풀씨는 맺었나
슬픔은 없더나.

*

저 산처럼 서야지
산이 거느리는 핏빛 그리움으로
살아 남아야지
밤마다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며
가버린 벗 생각는 일은
그만 두어야지
깊은 숲그늘 바람, 숨 죽여 울면
아직도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

호스피스병원에서의 죽음

김인진 교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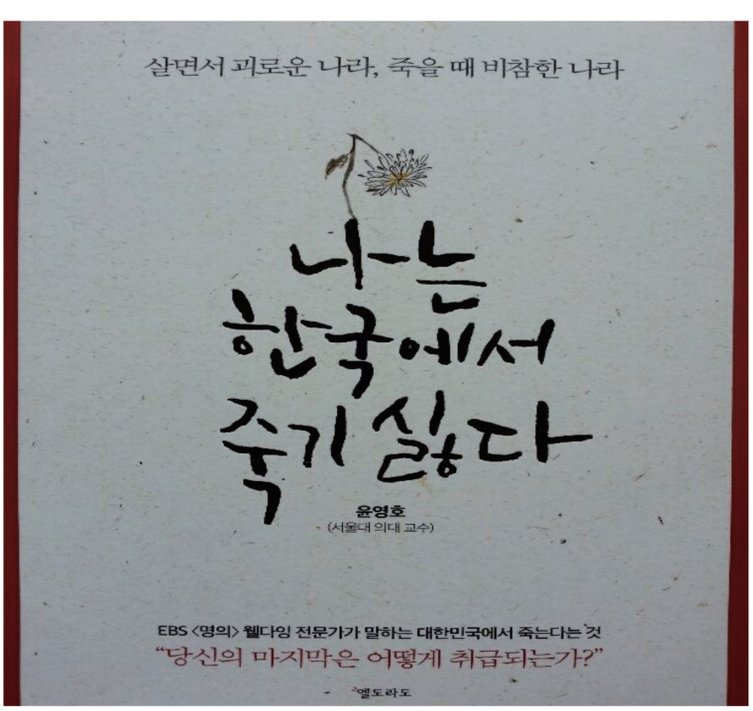
(재)원병원 병원장

(사)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죽음

원불교 호스피스회 (김인진 교무)

잘 **사는**데 **신**경쓰느**라**
잘 **죽는**걸 **생각하지** 않**는** 나**라**



보라매 병원 사건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실려옴

▶ **의식 불명**

▶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

▶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제거

▶ 얼마 후 사망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

2008년 2월, 김순희씨(1932년생)는 기관지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8개월간 식물인간상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병원 측에 요청

▶ 병원이 거부 ▶ 소송 제기

= 연명의료작성은 자식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1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것**

2 **가족이 함께 있는것**

3 **통증으로 부터의 해방**

품위있는 죽음이란

돈이 많은 사람은 식물상태에서도 몇 년동안 최고의 신체적 간호를 받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품위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 간병비와 병원비를 마련?

그러나 제 3자가 볼때는 그것을 품위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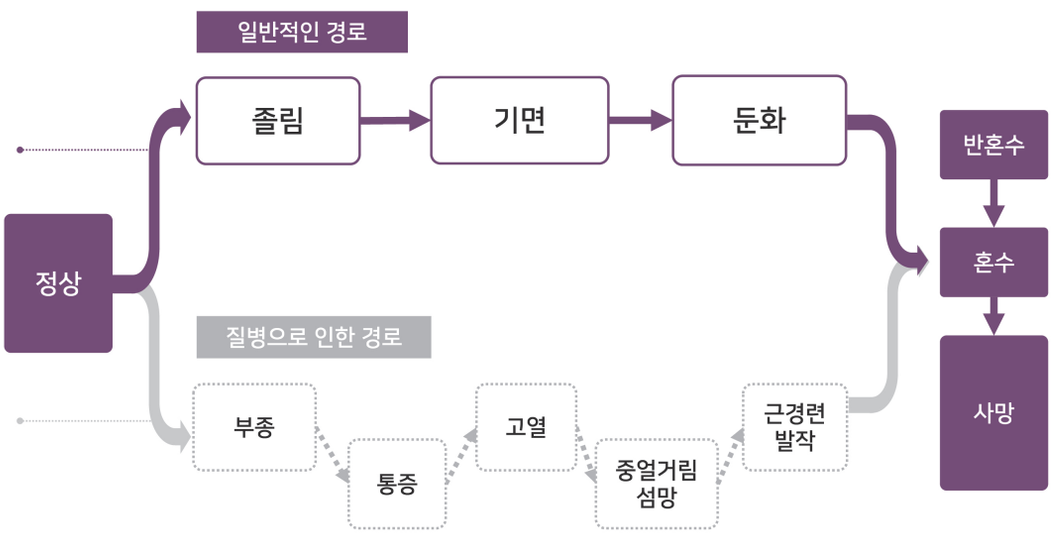
죽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죽음의 과정을 알아야 준비한다

▌: 죽기 전에 죽는 과정을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 과정, 영적)

임종과정의 2가지 경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중단 가능)

-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등..

연명의료 중단 제외

- 영양 공급 , 수분공급, 산소공급, 통증 조절

신체적 임종 준비

나는 의학적 도움을 받아 신체적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원한다

- 진정제 사용 : 섬망이 심하고 임종이 가까울때 진정제 사용
- 영양제 , 산소공급 : 임종기에는 산소공급은 안한다.
- 수액공급, 진통제 사용 : 통증은 끝까지 조절되길 바란다

  (패치, 마약성 진통제)

정서적 변화

- 거부감 :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 분리감 : 사랑하는 사람, 이세상과의 이별
- 두려움 : 죽음 자체, 홀로 죽는 것, 통증, 통제력과 정신을 잃는 것
- 죄책감 :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남겨진 가족의 걱정

환자와 보호자간의 갈등

1 준비가 안된 환자와 보호자

사례)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와 (윤00)

- 6살된 아이와의 작별시간을 갖지 못함.
- 임종 1주일전까지 적극적 치료 원함.
- 환자와 보호자의 소진이 심함

2 준비가 안된 환자와 준비된 보호자

1)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

- 고가의 호르몬 주사를 원함

2) 신 00 님

- 나 죽는데 하며 힘들어 함

3 준비 된 환자와 준비가 안된 보호자

60대 중반의 어머니를 못 보내는 아들
-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을 다닌다.
- 영양제에 의존
- 임종교육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연명의료)

4 준비가 된 환자와 보호자

1) 신체적- 적극적 증상 조절
2) 경제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
3) 정신적- 충분한 의사소통
4) 영적- 수용

김OO (72세) 원불교

- 2018년 2월 원대에서 담낭암 진단- 간, 뼈 전이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한 상태로 6개월 여명 진단
- 수술과 항암 거부, 방사선 치료후 기력이 소진
- 호스피스 병원에 오심

사후 준비

- 기도, 독경 : 교도들과 기도, 사전 천도법문
- 재산 정리 : 봉공회비 6만원 내심
- 입관 때 같이 넣어 달라며 교전, 염주
- 연명의료 하지 않음으로 가족들 화합

유언을 미리 처결

- **병원비** : 1인실 사용과 간병비 준비 (2달 – 말기암의 경우)
- **사후 종교의식** : 독경과 천도재 (가족에게 유언)
- **영적 지지** : 방문객 – 독경, 선정

염불과 기도, 선정 속에 영적 평안을 원한다.

원불교에서 보는 죽음

삼세의 윤회 속에서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신체적 죽음을 연장'하기 보다는 '내생(來生)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환자를 보내는 방법

- 실내 를 깨끗이, 장내를 조용히 - 정신이 깨끗하고 전일하게
- 좋은 업적을 찬미하라 – 마음을 위안, 내생의 습관
- 걱정스러운 말 하지마라- 애착, 탐착을 조장하지 마라
- 기도, 염줄, 선정, 울지마라- 정신 어지럽지 않고 안정을 얻도록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할 일

-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 유언, 재산정리등을 미리 하도록 한다
-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평상시 신앙하는 종교에 의지하여 영혼이 떠나게 한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품위있는 죽음 준비는…

- 정신- 재물욕, 색욕(인연) , 명리욕 (권력, 명예)
- 죽음에 대한 이해: 무아, 인과
- 행동 - 평상시 실천 : 착심 떼는 실천 (의식주, 인연)

  예) 소 식, 나 눔 (물건) , 인연 (착심) , 선정 , 봉사

품위있는 죽음 준비는…

- 26살 남자가 대장암 말기로 입원
- 죽음준비는 내생을 준비하는 과정
-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

  준비는 철저히 하되, 자연스럽게 맡긴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후

1. 카드가 집으로 배달

2. 가족에게 알리기 : 특히 배우자, 자식

티베트 사자의 서

상연스님

현 실상사 인드라망 생명평화공동체 지도법사

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마을주민
아카데미
3차시

티베트 사자의 서

상연스님

1. 《티베트 사자의 서》에 대한 개요

1) 무엇인가? 중유(中有) 상태에서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

* Bardo thädol(中有에서 들음을 통한 해탈)

2) 어떤 내용인가?

불교를 종교로 갖는, 중유로 태어난 망자가 최장 49일 동안 경험하는[상징적] 사건들.

3) 왜 공부해야 하는가?

삶은 곧 잘 죽는 것으로 완성되는데,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 잘 사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Memento mori!)

2. 《티베트 사자의 서》의 구체적 내용

1) 법성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중유(사망 순간부터 4일째 전까지)

* 법신해탈(法身解脫)이며 다시 윤회하지 않고 해탈 가능.

① 첫 번째 밝은 빛을 경험하는 중유(막 죽어가는 때 경험)

* 5근, 4대, 5온의 순으로 잦아드는 때.

② 두 번째 밝은 빛을 경험하는 중유(외호흡이 끊어지고 한 30분 후 경험)

* 4온 만의 의생신(意生身)으로 깨어나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명확한 자각이 있는, 생전의 세계와 중유계에 걸쳐 있는 상태.

2) 업의 환영들이 나타나는 중유(대략 총14일 간)

* 보신해탈(報身解脫)이며 다시 윤회하지 않고 해탈 가능,

* 스스로 중유의 몸과 중유의 세계를 경험하는 존재로 완전해진 상태

① 선정의 부처님들이 나타나는 중유(대략 사망 4일 째부터 10일 째까지)

* 선정에 든 부처님들이 내 비추는 강한 빛과 배면의 흐릿한 빛으로 경험되는 세계. 중유의 망자는 세계의 낯설음에 놀라며 두려워한다.

② 분노의 부처님들이 나타나는 중유(대략 사망 11일 째부터 17일 까지)

* 분노에 찬 부처님들과 수행보살들이 나타나는 세계. 그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들에 중유의 망자는 심한 공포를 느낀다.

3) 육도의 환영들이 나타나는 중유(대략 나머지 기간)

* 화신해탈(化身解脫)

① 자궁문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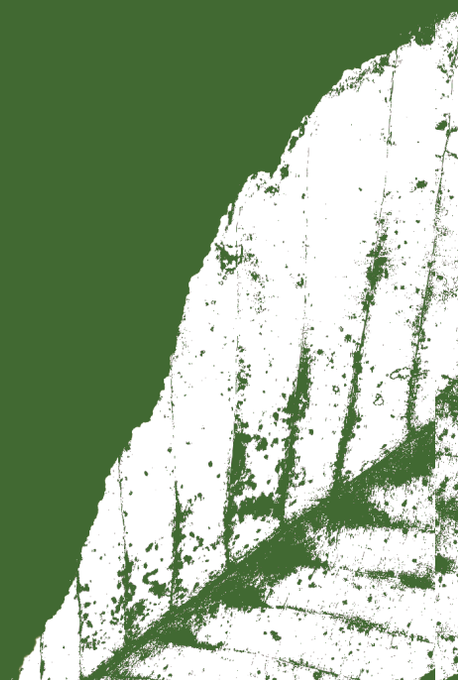
* 해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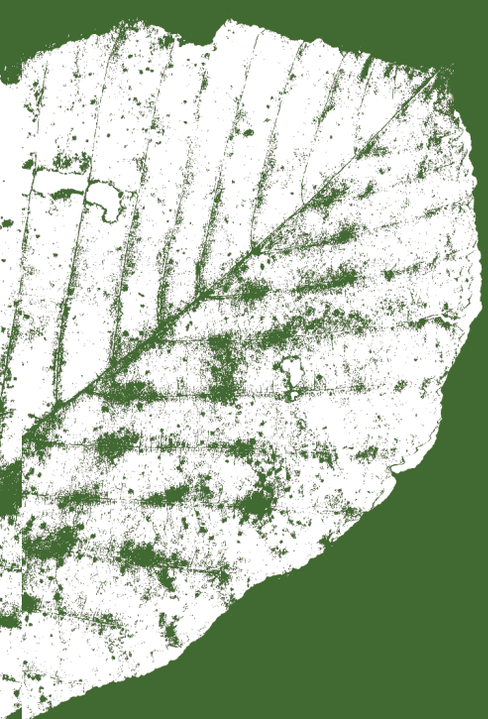
② 좋은 자궁 선택하기

* 해탈 불가능,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거쳐야 해탈이 가능하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동서양 성인들을 통해서 본 죽음관





오수록 프란치스코 수사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수도회) 수사

도남서원(道南書院) 만취 위계도 선생님 문하에서 유가경전 사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 박사

월간 〈《문학바탕》〉 등단 시인

현: 가톨릭 한사랑 가족 공동체 사목

현: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위원장

마을주민
아카데미
4차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동서양 성인들을 통해서 본 죽음관

오수록 프란치스코 수사님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1. 이야기 하나 ; 평생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켜온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저희 친척들 가운데에는 단 한 명도 천주교 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장차 가톨릭수도자로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저를 닮은 아기를 낳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고, 제가 시인이나 철학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꿈을 키워야 했는데, 철인(哲人)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님이 쓰러지시고, 그야말로 저희 집안은 우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환은 저를 절망 속으로 내몰지 않고 새 삶의 길, 즉 복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맹자님 말씀에 “우환(憂患)에 살고 안락(安樂)에 죽는다(『맹자』 「고자」편15,5).”고 했던가요? 우환을 이겨내고 싶어서 손에 든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 그 속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귀천하신 이유가 적혀 있을 것만 같았고, 또 온갖 고난을 당하며 하느님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원천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의 성경 읽기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말씀이 『루카복음』9장 59절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아, 그런데 이 무슨 박절한 말씀입니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니! 그렇다면 저는 우환에 시달리고 있는 저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스스로에게 맡기고 냉정하게 당신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로서는 그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분의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며 저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1코린 7,32-33)."

그랬습니다. 평생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은 오로지 갈라짐 없는 제 온 마음을 봉헌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나선 곳이 작은형제회의 성소 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정 중에 제가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 끊어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끊어버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이별만큼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특별히 제게 부탁하시기를 "어머니께서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평생 잘 모시라."고 하신 분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모님보다 먼저 돌아기시게 되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참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감실 앞에서 기도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수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입회만 시켜 주면 뭐든지 다할 것만 같았던 수도생활이 현실이 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휴가를 얻어 본가 방문을 할 때면, 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따뜻했고 크나큰 위로가 되었지만 때로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사람은 사랑하면 곁에 두고 싶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몹시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저를 불러 깨웠습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루카 9,62).”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별을 하고 출가를 결심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귀도 주교 앞에서 속옷까지 벗어서 아버지께 돌려 드리며 “이제부터 나는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2첼 12).”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언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부모와 결별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곳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불쌍한 이웃들을 형제자매로 여겼으며, 함께 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삶의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수도자가 부모 형제와 헤어져서 출가한 이유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선물로 바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유혹에 약해지거나 사사로운 인정에 매인다면 도가 성글게 됩니다. 제 영혼은 육신을 집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발을 뺄 수 있음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이야기 둘 ; 죽음의 찬가

1)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린 공자

공자는 현실을 긍정하고 중시하는 현실론자요, 인본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 계로(季路)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삶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論語』,「先進篇」)?"라고 반문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자의 대답 속에는 귀신을 섬기기 이전에 산 사람을 먼저 섬겨야하고, 잘 죽기위해서는 먼저 삶을 잘 살아야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삶이 지고지순(至高至純)하고 올바르다면 죽음의 대해서 무슨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공자는 69세에 50세 된 아들 이(鯉)를 잃었고, 72세에는 41세 된 사랑하는 제자 안연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안연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자,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공자의 비탄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만일에 늙은 공자 자신이 젊은 제자 안연보다 먼저 죽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안연이 살아있다면 공자의 도통(道統)을 안연이 이어받아 도(道)가 후세에 계승되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평생의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근심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한편 공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썩고, 철인(哲人)이 시들어가는구나!'라고 읊조리고는 집안에 들어서서 자공에게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공자는 7일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때에 공자는 죽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죽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생사의 수수께끼를 꿰뚫어 보아야만 죽음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의 커다란 장애물을 깨뜨려야만 진실로 자유롭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죽음 앞에서 노래한 장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았던 장자의 생사관(生死觀)은 공자와는 사뭇 다릅니다. 공자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슬픈 눈물을 흘리지만, 장자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물동이를 동동 두드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던 그의 친구 혜자는 의아해서 장자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부인과 함께 살면서 자식도 기르고 몸이 함께 늙어가다 죽었는데, 곡(哭)을 하지 않는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으나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하고 말하니,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그가 죽었을 때 처음엔 내 어찌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처음을 살펴볼 때 원래 생명이 없었네.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네. 형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기(氣)도 없었네. 흐릿하고 아득한 사이에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氣)가 생기고 기(氣)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갖추어졌네. 그것이 지금 또 바뀌어 죽음으로 간 것이네. 이것은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네. 그 사람은 바야흐로 천지 사이의 큰 방에서 편안히 자고 있네. 그런데 내가 큰소리로 따라서 운다면, 내 스스로 천명에 통하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울기를 그친 것이라네(『莊子外篇』「至樂」)."

이처럼 장자는 아내가 혼돈에서 왔다가 혼돈으로 돌아가 천지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함 앞에서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생사관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혼 불멸을 확신했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회에 의해서 공인 된 신(神)들을 섬기지 않고 생소한 신(神)을 수입했다는 것과 청년들을 타락 시켰다는 죄목으로 투옥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감옥으로 스승을 찾아가 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날 대화의 주제는 죽음과 영혼불멸, 인간은 소멸하는 육신과 불멸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자신이 독배를 마시면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행복한 이들의 축복을 누리려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흉사가 아니라 고귀한 영혼이 비천한 육신에서 해방되는 경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철리(哲理)를 제자들에게 설파하고 나서 형리가 독미나리에서 채취한 독약을 가져오자, 독약을 매우 유쾌하게 쭉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린 천을 벗기면서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아폴로 신의 아들로서 치유의 신)에게 수탉 한 마리를 바쳐야 하네. 그렇게 해주게나(『파아돈』118항)."라고 유언하고 곧 운명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불멸을 확신하고 죽음이야말로 고귀한 영혼이 비천한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경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철인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대의 가장 탁월한 현자는 영혼불멸을 확신한 나머지 흔쾌히 죽음을 수락했고, 온 인류는 그의 죽음을 잊지 않고 상기합니다.

4) 죽고 싶지 않았던 예수

예수는 소크라테스가 죽고 싶어 죽는 것과는 달리 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에서 번민에 휩싸여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마르14,36)."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의 기도 속에는 죽기를 싫어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죽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도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는 올 것이요'라고 거듭거듭 외쳤습니다(하느님 나라 선포). 아울러 한 맺힌 민초들과 어울리고 병자들을 고쳐줌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과시하곤 하였습니다(하느님 나라의 현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그 나라가 이룩되면 온 누리가 구원될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가 죽음을 마다한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15,35)?" 절망적인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절망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 울적한 고독감을 극복하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가23,46)."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서(로마5,12), 모든 육체적 요소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로마8,13). 그러므로 죽음은 사건인 동시에 상태입니다(필립1,20 ; 히브7,23). 그러나 이 죽음을 종결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히브2,14 ; 2디모1,10). 예수의 부활로 인류는 최후의 암흑에서 해방되었고, 인간은 희망 없는 이기적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삶의 완결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죽음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즉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11,25).”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의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로마서5,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요한16,28)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비롭고 의로운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묵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신앙 가운데서 하느님이 몸소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통교하고 하느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자기 입만 있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도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모든 존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두를 위하여 살며, 항상 공동선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 이야기 셋 ; 죽음 앞에서 얻은 두 편의 시

일상 속에서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낯선 손님이 불현듯 찾아오면 자못 당황스럽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위암은 낯선 손님같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만성 미란성 위염’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터였습니다. 선친께서 위암을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때론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러 갈 때면 늘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컴퓨터 모니터에 저장된 내 위(胃)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위에 암이 생겼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얀 도화지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체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위암 판명을 받은 날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제 몸속에 있던 힘이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도원에 돌아왔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자니 뜻하지 않게 손님처럼 시가 찾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다

예쁜 여자를 바라보아도
시끄러운 저잣거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와 함께 농담을 해도
핍박과 조롱과 굴욕을 당해도
발길에 걷어 채이고 매질을 당해도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도
병원에서 의사에게 암 판명을 받아도
평상심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네 숨 속의
숨을 보아라.

(졸시「명상이 있는 기도」전문)

그때 제 모습은 밖으론 태연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위암이 주는 공포 앞에서 소스라치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 것입니다. 그 최면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몸 운동 본부를 찾아가서 장기 기증을 하고, 수방(修房) 정리를 하여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삶의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떠나는 뒷모습은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언젠가는 죽는 것이기에 죽음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한 시간을 암과 싸우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려웠고, 제 선친이 그러셨듯이 저도 어쩌면 늙으신 어머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지닌 체 저는 위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와 고지혈증의 지병을 함께 지니고 살아왔던 터라 몸은 쇠약해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전환이나 하려고 떠난 순례의 길에서 시 한 편을 줍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시인이시다
끊임없이 땅에다 대고 시를
쓰신다 삶에 지친 인간들 읽으라고
땅에다가 대고 시를 쓰신다

삶에 지친 영혼에게
하얀 매화꽃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와 푸른
대나무 숲을 스치는 청량한 바람소리를 공으로
들으라고 들판에다 시를 쓰신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흰 모래톱을 지나는
물새들의 느린 발자욱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으라고
강바닥에다 시를 쓰신다

그러니 삶이 고단하고 남루하다 생각이 들 때
우리도 하느님 들으시라고 하늘에다 대고 시를 읽자
무거운 생각 훌훌 날려 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서 좋지 않은가?

(졸시「섬진강에서」전문)

한바탕 병을 앓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고 은혜로웠으며, 순례의 길에서 만난 모든 것이 시요, 음악이요, 그림이요, 성사였습니다.

4. 마무리 ; 영원한 생명

擊鼓催人命 : 둥 둥 둥 북소리 울려 사람목숨 재촉하네
回頭日欲斜 : 고개 들어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려하는데
黃泉無一店 :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하나 없으니
今夜宿誰家 : 오늘밤에는 누구 집에서 쉬어갈거나

조선 세종때 집현전 학자였던 성삼문(1418-1456)은 절명시(絶命詩)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절명시가 주는 내용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성삼문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할 때 반대하다가 죄인의 몸이 되어 사약을 앞에 놓고,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시로 읊은듯합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죽음 앞에서 조금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기계와 수양으로써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의연한 광경이지만, 절명시를 읽는 사람으로써의 감정은 왠지 슬프고 애잔하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관이나 내세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소스라치게 놀라고 긴장하며,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인의 인생관에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사는 동안 가급적이면 죽음을 회피하고, 생명의 주체의식 가운데 죽음을 끌어들여 사색하거나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꺼려하며, 아울러 죽음이 인생에 주는 비극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면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생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또 절대로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죽음을 드러내고 직시하며, 죽음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에 빠져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의미를 헛되이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생사의 수수께끼를 꿰뚫어 보아야만 죽음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의 커다란 장애물을 깨뜨려야만 진실로 자유롭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서 삶의 성취와 참된 자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 생명을 단지 미래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요한」5,24).”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됨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하며, 하느님의 의지가 다스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로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목숨까지 내어주고 죽어 가시면서도 더 못 주어서 아파하며 친히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며 빵이신 하느님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은 참으로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묵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신앙 가운데서 하느님이 몸소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통교하고 하느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자기 입만 있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도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모든 존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두를 위하여 살며, 항상 공동선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교회의 교리가 말하는 최후심판을 거쳐 역사적 종말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 다음에 오는 저 세상의 세계, 곧 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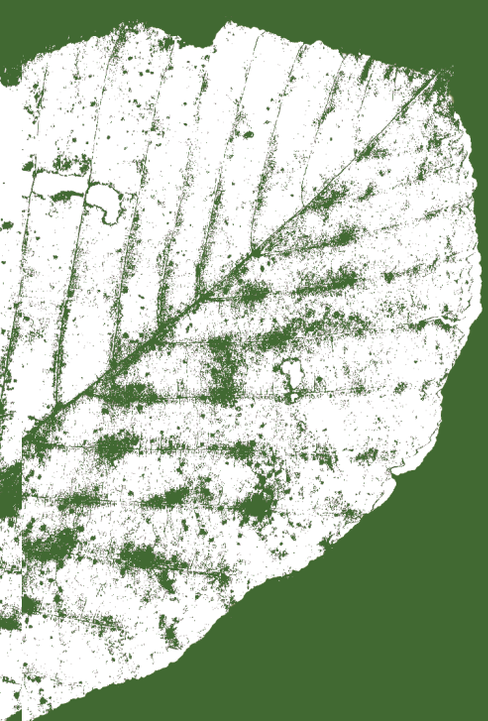
우리는 이것을 부자 청년과 예수의 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청년이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마태9」,16)?"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아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태」9,21)."고 말합니다. 예수의 대답 속에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미래적인 요소와 현재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곧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그 가운데 참된 길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깨닫게 된다면 언제 죽든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상·장례 의식과 죽음의 수용

이상윤

사단법인 '숲길' 이사장으로 지리산둘레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걷는길연합 대표로도 활동하였다. 청소년시절 그려왔던 지리산으로 귀농하게 되면서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에 참여, 시민활동가로 살고 있으나 언제나 소박한 농사꾼을 꿈꾸고 있다.



마을주민
아카데미
4차시

상·장례의식과 죽음의 수용

이상윤 대표님

1. 죽음의 과정 (큐블러 로스, 미국 세계최초 생사학이란 학문 영역 개척?)

죽어가는 말기 환자 200여명을 직적 면접 조사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심리변화를 5단계로 제시

1-1. 부인

대부분의 환자는 소생과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경험하는 첫 단계가 충격과 부인. 거부감을 가지고 진단이 잘못 됐을 것, 병에 걸리지 않았어. 부인하면서 주변에서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죽음이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갈 수 있다”는 현대과학의 신봉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인의 “죽기 전에 정리할 것은 하나씩 정리해야겠구나. 만일 정말로 죽는다면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리 해 두어야겠구나.” 서서히 다음 단계로 진행

1-2. 분노

죄의식, 수치감, 적대감이 형성되고 “아니야!” “왜 내가” 이 단계의 환자를 다루기는 쉽지 않다. 자기 죽음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1-3. 타협

이 단계의 기간은 짧다. 타인에게 협조적이다. 이 단계의 말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애원하는 것이 1년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시간적 타협’ 집에 다녀 오겠다. 병원 안팎을 돌아다니게 해 달라 들 ‘측은한 타협’ 등

1-4. 우울

죽음을 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경향이 자기애도로 바뀐다.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의 운명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고독감을 느끼고 우울과 비탄이 형성된다.

1-5. 수용

죽음을 맞이하는 최종단계로 무감동, 무기력하게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 때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못 다한 일도 있으나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말이 더 없다. 나는 갈 준비가 됐다'는 식이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때로는 문병객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사람이 방문해도 이야기 나눌 기분이 아닐 때가 많다. 언어보다 무언의 의사소통으로 바뀐다. 이 시기 침착한 침묵으로 대함으로써 환자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큰 위로를 받는다.

2. 남은 사람들의 비탄 과정

2-1. 정신적인 타격과 마비 상태

2-2. 부인

2-3. 패닉

2-4. 부당함에 대한 분노

2-5. 적의와 원망

2-6. 죄의식

2-7. 공상과 환상

2-8. 고독감과 억울함

2-9. 정신적 혼란과 무관심

2-10. 체념과 수용

2-11. 새로운 희망과 유머

2-12. 회복의 단계 –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3. 장례

〈맹자〉

상고에 부모가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부모가 죽으면 시체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버렸다. 그런데 뒷날 시체를 버린 이가 그곳을 지나다 보니 여우와 살쾡이가 시체를 뜯어 먹고, 파리와 모기가 엉켜서 빨아 먹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는 식은땀이 흐르며 눈길을 돌리고 바로 보지 못했다. 그 식은땀은 사람의 이목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얼굴로 나타나 흘린 것이다. 그는 곧 집으로 가서 들것과 가래를 가지고 돌아와 흙으로 시체를 덮었다. -등문공장구-

〈주역〉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 두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고서 봉분도 하지 않았다. -계사하전-

〈예〉 3-4세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던 부족국가

사람이 혹 중한 병으로 앓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었다. 식구가 몹시 앓거나 죽으면 살았던 집을 버리거나 헐어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다. -후한서, 동이전, 예편-

〈동옥저〉 고구려지역 동쪽 예와 국경을 맞댄 부족국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는 나무로 큰 곽을 만들어 길이가 십여 길이나 되게 하고 한쪽으로 문을 내둔다. 죽은 사람을 우선 가매장해 두었다가 살이 모두 썩은 뒤에 뼈만을 추려서 이 곽 속에 넣어 두니 결국 한 집안 식구들이 한 곽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나무를 새겨 신주처럼 새겨 만들어 죽은 사람 수를 헤아렸다. -후한서 동옥저편-

〈부여〉

사람이 죽으면 곽이 있어도 관은 없다. 사람을 죽여 순장시키는데 숫자가 많은 자는 백명이나 되었다. 또 임금이 죽으면 옥갑에 넣어 장사를 지냈다. - 후한서 부여편-

〈고구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 벌써 장사지낼 때 입을 옷을 장만했다. 그리고 장사는 후하게 지낸다. 금, 은, 돈, 폐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써서 장사를 지낸다. 그리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봉분 앞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는다.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편-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를 만들어 놓고 삼 년을 지낸 다음 길일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와 남편의 초상에는 삼년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 동안 입는다. 초종을 치를 때에는 모두 곡하고 울지만 장사 지낼 때에는 음악에 맞춰 춤춘다. 장사가 끝나면 입던 의복과 거마를 무덤 곁에 놓아두었다가 장사 때 모인 사람들이 다투어 집에 가지고 갔다. -북사 고구려전-

〈신라〉

부모나 사람이 죽으면 널을 쓰고 염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다. 왕이나 부모 그리고 처자가 죽었을 때 일년 동안 복을 입는다. - 북사, 신라전-

분묘를 치장하는 것은 비방만 남길 것이요, 인력을 수고롭게 하고 죽은 혼령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종 후 열흘이 되면 왕궁 밖 뜰에서 불로 태워 장사지내고 상복을 입는 경중이야 규제가 있을 터이나 장례 절차는 힘써 검약하게 하라. - 삼국사기, 문무왕 유언 -

〈백제〉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복을 입는다. 그 나머지 친척들은 장사 지내면 이내 복을 벗는다. - 주서, 이역전, 백제편 -

〈고려〉

죽은 사람은 빈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가려서 장사를 지낸다.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모두 3년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을 입는다. 초종을 치를 때는 모두 곡하고 울지만 장사 치르고 나면 북을 치고 춤추면서 풍류를 아뢰어서 죽을 이를 보내는 예를 베푼다. -주서, 동이전, 고려편-

〈조선의 장례〉

고려말 도입된 주자학과 성리학의 통치 이념 체계에 따라 절차와 예법이 정해짐. 사람의 지각을 정신으로 보고 죽은 뒤 그 정신을 귀신으로 부름. 귀신은 한시적인 존재로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혼의 개념으로 정립.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를 음양의 기로 설명, 기가 생하면 탄생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되는 음양법칙으로 이해.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져 혼(정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몸)은 땅에 스며든다고 봄.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는 상례문화 정착. 혼과 백의 개념에 의한 망자의 혼과 백을 위한 의례, 장사 후에는 혼과 백을 불러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상중/제의례가 중심. 조선의 장례 전범이 현대에 남아 있고, 제 종교의 장례절차의 골격이 되고 있음. (이후 국조오례의, 가례집람, 상례비요, 사례편람 등 조선의 의례법집)

조선후기(헌종 10년, 1844년) 도암 이재가 간행한 '사례편람'은 유교 상례절차를 집대성한 것으로 일반 서민의 상례집이 되었다.

첫째, 죽음을 맞아 충격을 완화하고 소생을 바라는 초종의식 단계로 초종, 습, 소렴, 대렴의 4대절차가 있다. 둘째, 죽음을 인정하고 지극한 슬픔 속에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송의식 단계는 성복, 조상, 문상, 치장, 전구, 발인, 급묘, 반곡의 8대 절차이고 마지막으로 고인을 땅에 장사 지내고 분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감시켜 가는 상/제 의식 단계는 우제,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의 7개 단계로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매장을 근대적인 방식의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 안에 설치한 화장로에서 행하는 화장이 첫 선을 보임. 조선총독부는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제규칙'을 제정 선포하여 공동묘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묘지에 매장하도록 강제하였고, '건전한 장례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통적인 상례 풍습을 대폭 간소화 함. 상례시 성복의 절차 생략, 염습이 끝나면 상복을 입되 굴건제복이 아닌 두루마기에 통 두건을 착용하거나 상장을 달도록 제한하고 양복을 입고 완장을 차게 하였다. 장례 기간도 5일로 제한하였고 복을 입는 기간도 2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제한하였다. 우제 역시 삼우제 1회로 단축하였다. 운구시

수레가 등장하고 장의사라는 직업이 탄생하였다.

〈현대 장례〉

196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도시 안이나 가까운 곳에 있던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조시 부적격 시설로 낙인을 찍어 도시 밖으로 이전되거나 문을 닫게 되었다. 선진국의 묘지공원을 흉내 낸 공원묘지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지만 공원 없는 묘지만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주거 형태의 변화로 아파트가 자리 잡으면서 건물 구조상 장례를 치르기에는 부적합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병원에 부설된 시체 안치실 천막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태동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전문 장례식장 육성 방침에 따라 지방의 중소도시에 장례식장이 건립되었고 본격적인 장례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4. 장법

4-1. 매장

단장, 합장, 중장, 집장 혹은 가족장 유골의 일부만 묻는 부분장, 무덤만 만들어 놓고 시체를 넣지 않는 허장, 노예나 처첩을 무덤에 함께 묻는 순장이 있다.

매장하는 자세에 따라 몸을 구부려 넣은 굴장, 자는 듯한 자세로 넣는 신장이나 직지장, 불교 스님들의 좌장, 드물지만 관을 세워서 넣는 입장이 있다.

시체를 보호하는 장구에 따라 시체만 묻는 것을 토장, 탈관장이라 하고 나무로 널을 만들어 사용하는 목관장, 돌관을 쓰는 석관장, 흙으로 집은 질그릇을 사용하는 옹관장, 기와를 만든 것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는 와관장, 유골을 담는 항아리를 이용한 골호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목관장이 일반적이며 종이나 합성수지로 만든 관이 등장했다.

매장의 방향

시신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하는 것을 침향이라 한다. 민족, 지방, 종교에 따라 다르다.

선사시대 동침이었다. 이는 해가 뜨는 방향이 다시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이후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 백제에서는 북침이 성행했으나 7세기까지 동침의 전통은 이어져 왔다. 통일신라 이후 북침이 일반화되었다. 북침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음양오행사상에서 북쪽이 음이요 현무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설. 도교의 북두칠성 신앙의 영향이라는 설. 중국인들의 북망산천의식의 영향설. 석가의 입적시 북침이었기 때문이라는 설. 한국사람들은 북방에 귀신이 드나드는 귀문이 있다고 믿었기때문이라는 설.

4-2. 화장

화장은 2천년을 훨씬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선사시대 유적에서는 불에 탄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고 청동기 시대 지석묘에서 화장인골이 나왔고, 통일신라에서 고려중기까지 장법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후 화장문화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화장이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급속화 된 요즘은 화장문화가 일반적이다.

화장은 시체의 형질을 단시간내 변화 시켜 일차장으로 불에 탄 뼈를 매장하거나 산골 또는 봉안이라는 이차장을 수반라는 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4-3. 자연장

장법은 그 시대 사람들의 내세관이나 문화 그리고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이전되면서 대가족이 핵가족화로 변화되면서 죽음과 주검이 가족, 마을 공동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또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장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자연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장법이다.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고, 유골을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능해야 한다.

수목장, 평장, 집단 자연장(인덕원). 산골장

5. 죽음 들여다보기 (워크샵)

유언: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 효력을 발생케하기 위해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다독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없다.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을 세워 공증기관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증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들려 준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하여 각기 기명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법적효력발생)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사례 1) 어느 소설가의 죽음(62세)

2003년 2월 위암 말기 통보 받고 퇴원. 3년ㄴ 계약금 받았던 동시집 원고료 반환. 이틀 후 재 입원. 유언을 남김 : 아빠가 혼수상태가 되거든 이틀을 넘기자 마라.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동시에 산소 호흡기를 떼라. 절대 연장하지 마라. 화장 후 보령의 관촌에 뿌려라. 여한이 없이 살다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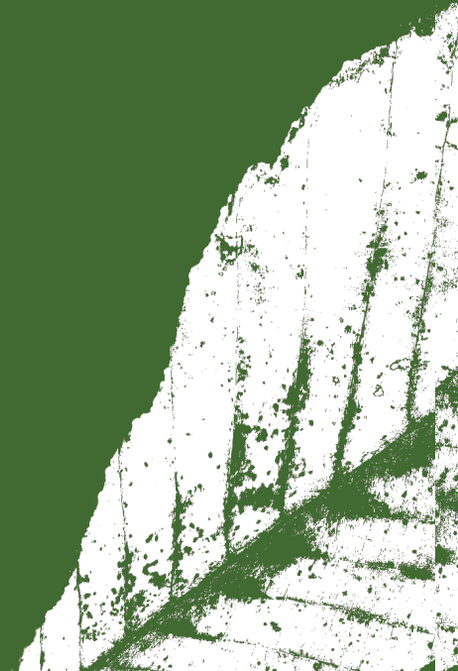
사례 2) 어느 할머니의 죽음(83세)

언젠가 한 번 많이 아팠을 때 이웃에 사는 큰며느리에게 살여달라고 하였다. 그 후 3개월간 아무 탈없이 살다가 다시 아프셨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의사를 부르지 마라'고 당부. 결국 그 날 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운명.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정리를 말끔히 해서 아무 것도 치울 게 없다더라

《나의 유언 써 보기》

《묘비명》

우주 이야기가 들려주는 인간생명



맹영선

식품화학과 환경신학을 공부한 뒤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해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공부하고 있다. 토마스 베리의 《지구의 꿈》, 《우주 이야기》, 《생태 영성》을 우리말로 옮겼다. 포럼 지구와 사람의 '토마스 베리 강좌'에서 토마스 베리가 던진 우리 시대에 던진 질문에 어떻게 함께 대답할 것인지 함께 공부하고 있다.

마을주민
아카데미
4차시

『우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맹영선 선생님

20세기 이전 생명 논의는 주로 철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 과학자들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명 연구를 시작했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생명의 기본 코드(code)인 유전자(gene) 조작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은 추상적·관념적 개념일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대 생명 이해는 과학에 기초한다. 하지만 과학적인 생명 이해가 생명 이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학은 아직 생명의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시대 생명 이해는 그 무엇보다 과학에 기초한다. 생명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으면, 생명의 의미는 축소되고 무력화되기 쉽다.

지금 우리 앞에는 빅뱅우주론과 진화생물학으로 설명되는 **진화하는 우주**가 펼쳐져 있다. 우리 시대는 현대 과학을 통해 이전 시대보다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현대 과학은 우주를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출현했고, 지구에 생명이 탄생해서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상호 의존성과 인간의 우주 의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대 과학은 생명 출현을 위해서 무한한 수의 물리적 조건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했고, 생물 진화의 역사는 초기 우주의 조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생명은 우주 진화에서 갑자기 나타났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위배하지도 그 법칙에서 스스로 분리되지도 않는다. 현대 과학의 이런 생명 이해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주장을 철저히 배격한다.

우주와 생명에 관한 현대 과학의 설명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주의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갖는 친밀한 관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인간**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진화된 형태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광대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화과정의 부분일 뿐이고, 우주 공동체의 일원이다. 인간은 우주적인 힘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분명히 자연을 구성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지구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현대 과학의 이런 **우주와 생명 이해**가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베리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제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진단했고 그 대안을 찾았다. 베리는 생태계 위기를 과학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 **영성(spirituality)의 문제, 영적인 위기**로 파악했다. 생태계 위기는 스스로 자연으로부터 유리되었다고 생각한 인간의 영성이 쇠퇴하면서 초래된 현상이다. 베리는 자연 세계는 인간에게 물리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때문에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토마스 베리가 **『우주 이야기(Universe Story)』***를 저술한 목적은 인간을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 그물(web of relation)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베리의 『우주 이야기』를 통해 우주의 펼쳐짐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 태초의 불덩어리로 찬란하게 펼쳐지기 시작한 우주에서, **창발**한 물질은 자기-조직을 통해 어떤 **필연성**이 없이 이미 수소 원자, 성단, 초신성, 탄소, 생명, 그리고 결국에는 의식의 출현을 허용하는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희박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현대 과학은 생명 출현 수십억 년 전 우주는 놀랍게도 이미 생명과 의식을 갖는 존재를 만들려는 놀라운 경향이 있었고,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복잡성 증가와 자기-조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태초의 우주는 그런 결과를 결코 예측할 수 없었다고 감탄한다. 그렇게 우주는 우리 앞에 있다. 이제 앞으로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과정에서 새로운 무엇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현대 과학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의 미래에 대한 영속적인 개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토마스 베리의 약력과 생태 사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우주 이야기』**를 들어보자.

---

* 토마스 베리 & 브라이언 스윔 지음 , 맹영선 옮김. 『우주이야기: 태초의 찬란한 불꽃으로부터 생태대까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Swimme, Brian and Thomas Berry. The Universe Story: From the Primordial Flaring Forth to the Ecozoic Era – A Celebration of the Unfolding of the Cosmos. New York: Harper Collins, 1992].

토마스 베리의 약력

토마스 베리는 1914년 11월 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그린즈버러(Greensboro)에서 13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윌리엄 나탄 베리(William Nathan Berry)이다. 베리는 『위대한 과업(Great Work)』*에 실린 두 번째 글 「샛강 너머 초원(The Meadow Across the Creek)」에서, 열한 살 때쯤 기억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깨달음아 자기의 평생 규범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베리는 19세에 예수고난회에 입회해서, 평생을 예수고난회 수도사로 살았다. 라틴어 실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베리는 중세 신학자들의 글을 묶은 교부신학 책 몇십 권을 빌려서, 몰래 불을 켜고 침대에서 밤새 읽었다. 그 중세 신학자 중 베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베리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베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 수도명을 토마스로 받고, 194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미국 가톨릭대학교 (Catho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서양 지성사를 전공한 베리는 학문적인 여정을 문화사학(Cultural History)으로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역사철학자인 쟘바티스타 비코(Giambattsta Vico)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학위 논문제목은 『쟘바티스타 비코의 역사 이론(The Historical Theory of Giambattista Vico,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Press, 1951)』이다. 베리는 문화사 연구를 하면서, 아시아(동양) 사상이라는 커다란 또 다른 영성과 문화 전통을 공부해야만, 인류의 영성과 문화 전통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48년 베리는 중국 베이징 푸젠 가톨릭대에서 중국 문화와 종교를 연구할 계획으로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혁명 시기였던 1949년 마오쩌뚱의 집권으로 추방되었다. 중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동양사상 공부에 도움을 줄 콜럼비아(Coloumbia) 대학교의 윌리엄 테오도르 드 바리(William Theodore de Bary) 교수를 만났다. 드 바리는 당시 중국학과 동양학이라는 아시아학 연구(Asian Studies) 분야의 대가였다. 친구가 된 베리와 바리는 아시아 사상에 관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고, 두 사람의 학문적인 우정은 50여 년간 지속되었다. 중국 공산화 이후 베리는 인도의 종교 전통을 연구하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베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쟘바티스타 비코 뿐만 아니라 동양사상도

* 토마스 베리 지음, 이영숙 옮김. 『위대한 과업: 미래로 향한 우리의 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Berry, Thomas.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 York: Bell Tower, 1999.)

열심히 공부했다. 따라서 동서양 사상을 모두 공부한 베리가 지구적인(세계적인) 안목을 지니게 된 건 당연한 결과이다.

동서양 사상을 아우른 대표적인 동양 학자로는 보통 **다이세츠 스즈키(Suzuki Daisetsu)**와 **오경웅** 박사, 서양 학자로는 **조셉 니담(Joseph Neetham)**과 **테오도르 드 바리**가 주로 거론된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화약, 종이, 나침반**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발명품 모두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니담**이 서양에 알렸다.* **니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출판물을 통해 **아시아 과학**을 서양에 소개했고, **아시아 사상(철학, 종교)** 번역물 시리즈는 대부분 드 바리 교수가 있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주로 출판했다.

1949년 미국으로 돌아온 베리는 세계의 여러 언어, 즉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에 능숙해져 있었다. 콜럼비아대학 〈동양종교사상연구소〉에서 드 바리 교수와 함께 세계 종교와 역사 연구를 계속했다. 1956년부터 1979년까지 여러 대학의 종교학과에서 아시아학 교수로서 종교사와 아시아 종교(동양 종교), 특히 주로 〈중국과 인도의 종교와 문화〉를 강의했다. 1956년에서 1960년까지는 시튼 홀(Seton Hall) 대학에서, 1960년에서 1966년까지는 성 요한(St. John) 대학에서, 1966년에서 1979년까지는 포담(Fordham)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듀크 대학, 샌디아고 대학 등에서 강의를 계속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베리는 종교에 관한 많은 논문을 썼고, 1968년에는 『불교(Buddhism)』, 1972년 『인도의 종교(Religions of India)』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시기에 베리는 오경웅 박사도 만났다. 오경웅(존 우)은 『동서의 피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의 법학자이며 임어당과 함께 근대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진 분이다. 여러 종교를 거쳐서 가톨릭 신자가 된 오경웅은 불교에 관련된 글도 계속 썼고,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이나 **다이세츠 스즈키** 같은 영성가들과 친밀했다. 오경웅의 **『선학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라는 책의 부록에 있는 「선의 불꽃」이라는 글에 보면, '**토마스 베리** 신부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아시아 사상에 정통한 학자라고 베리 이야기를 한다. 동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서양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 동양인인 우리도 동양사상을 잘 모른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우리보다 베리는 동양사상을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잘 알았다.

* 조셉 니담 지음,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을유문화사, 1989.

베리는 세계 거대 종교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연구한 다음 지역 **원주민의 영성**과 샤머니즘을 공부했다. **칼 융(Carl Jung)**과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말하는 집단 무의식, 원형적 상징의 힘, 감수성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원주민 영성을 공부했다. 베리는 원주민들이 이 세상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역시 베리에게 존경심을 표하면서 그를 원로라고 부른다.

동서양 사상과 원주민 영성을 공부한 다음, 베리는 이제 **떼이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신세계를 공부했으니 **물질세계도 공부해야 하므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베리는 1940년대 말부터 떼이야르의 사상을 접했고, 떼이야르의 우주론적 진화현상론에 매혹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과학 이야기는 대부분 무미건조하고 가치 중립적이라 재미가 없다. 베리는 **혼이 들어 있는 자연과학**이 필요했다. 그런 영감을 준 분이 바로 떼이야르였다. 베리는 떼이야르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떼이야르 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1970년 뉴욕 리버데일에 **리버데일 종교연구소((Riverdale Center of Religious Research)**를 설립한 베리는 1995년까지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와 역사와 환경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출판을 했다. 그 연구소에서 베리는 아시아 종교문화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한 통합연구를 진행했고, 리버데일 논문집(The Riverdale Papers)도 발행했다. 베리는 그 논문집에 자기 생태 사상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1988년 『지구의 꿈(Dream of the Earth)』*을 출판했고, 1992년 『우주 이야기』, 2000년 『위대한 과업』을 출판했다. 그 외의 책들,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The Christian Future and the Fate of Earth)』**, **『황혼의 사색(Evening Thoughts)』****, **『성스러운 우주(The Sacred Universe)』** 등은 제자인 **메리 이블린 터커(Mary E. Tucker)**가 편집해서 출판한 것이다. 터커가 그동안 출판된 베리의 책에 수록되지 않은 글을 엮어서 출판한 **『황혼의 사색』** 부록 **「토마스 베리의 지적 전기(intellecutal biography)」*****에 베리의 지적 여정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신학자들과 대화하거나, 토론한 내용을 묶은 책으로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와 『토마스 베리와 새로운 우주론』이 있다. 2009년 6월 1일, 베리는 우주로 돌아갔다.

* 토마스 베리 지음, 맹영선 옮김. 『지구의 꿈』.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Berry, Thomas. The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8.)

** 토마스 베리 지음, 박만 옮김. 『황혼의 사색: 성스러운 공동체인 지구에 대한 성찰』. 한국기독교연구소, 2015.(Berry, Thomas. Evening Thoughts: Reflecting on Earth as Sacred Community. San Francisco, CA: Sierra Club Books, 2006.)

*** 『황혼의 사색』, 부록 3, 169~193쪽

지구학자 토마스 베리

문화사학자(Cultural Historian)로 학문의 여정을 시작했던 베리는, 1962년 출판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 자극을 받아서 '지구학자(geo-logian)'**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동서양 지성과 영성을 연구하던 베리는 『침묵의 봄』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계 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자들의 다양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구학자라는 이 선언은 신학자(theologian)에서 신(theo)을 지구(geo)로 대체하면서, 신 대신 지구를 연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베리는 이렇게 '지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다. 베리 이후 서양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구화(globaliz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지구적 차원의 사회학, 문화학, 여성학, 인류학, 종교학, 신학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학문 분야를 '지구학' 또는 '지구 인문학'이라고 한다. '지구학'은 20세기 '산업 시대' 인문학을 넘어서 21세기 '기후 위기와 팬데믹'의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학문이다. 베리는 '지구학자(Earth Scholar)'이다. 당신 스스로 '지구학자'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인간 문화를 연구하던 베리의 관심을 지구와 우주로 돌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카슨이다. 『침묵의 봄』을 통해 지구 생태계 위기를 최초로 경고했던 카슨은, 영문학을 공부하려다가 '인간이 지구라는 거대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고 가르쳐주는 생명과학에 매혹되어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하지만 글쓰기를 계속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를 둘러싼 바다』,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바다 3부작을 통해 자신의 바다 사랑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했다. 또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통해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으로 인체에 서서히 축적되는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DDT)의 영향을 심각하게 다루었다.

카슨은 인간 건강은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물과 공기와 식품의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슨은 이렇게 말했다. "생명과 자연은 하나다. 인간은 자연의 부분이다. 생명체는 자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과 토양은 먹이사슬의 기초이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관계의 전체성을 결코

* 레이첼 카슨 지음, 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침묵의 봄』, 에코 리브르 (2011).

** 지구학자라는 단어는 베리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지구학자는 지질학자(geologist)와 신학자(theologian)에서 만든 단어로서, 지구에 지질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 지구학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서로는 토마스 베리의 '지구의 꿈(1988)', 조나단 프리드먼의 '지구화 시대의 문화정체성(1994, 지구문화학)', 울리히 벡의 '지구화의 길(1997, 지구학)' 등이 있다.

잊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환경**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생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이 요청된다. **생태계** 안에서 개별 생명이 서로 어떻게 기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불가능하다." 카슨은 **생명공동체**를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다른 모든 존재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그물(web of life)**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카슨의 **『침묵의 봄』**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고(思考)의 출발점이 되었고, 베리와 앨 고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 카슨의 경고 이후 나타난 우리 시대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 현상**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 현상들은 각각도 문제지만, 이 현상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전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연구했다. 이원론, 과학기술, 인간중심주의, 가부장제, 소비주의, 교육 등이 보고되었고, **그리스도교 생태계 위기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 책임론을 주장한 사람들, 즉 **린 화이트(L. White, Jr.)**, 토인비(A. Toynbee), 카데(G. Cade), 아메리(C. Amery), 캅(J. Cobb) 등의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교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격렬한 논쟁을 끌어낸 것은 **화이트**의 논의였다.

1967년 **화이트**는 사이언스(Science)에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들」***이란 글을 투고했다. 그 글에서, 화이트는 많은 환경 문제의 근원이 '그리스도교의 자연에 대한 오만에 있다'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것은 과학과 기술이지만, 그 과학과 기술의 정신적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이원론적,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다."라는 화이트의 주장을 학자들은 **화이트의 명제**라고 한다. 성경적 자연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화이트는 그리스도교의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출처로 창세기의 '땅을 지배하라'와 '하느님의 모상'을 지적했다. 하지만 화이트는 대안으로 **생태학적 평등주의와 만물의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란치스코를 생태학자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했다.

화이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 많은 신학자가 대응 논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스도교 생태신학**은 이렇게 시작됐다. 가톨릭 사제로서 베리도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그리스도교적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58(3767): 1203-1207, 1967.

화이트의 도전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이해, 자연 이해,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구원 개념 등을 재검토/재해석하도록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화이트의 용감한 성찰에 감사한다. 화이트의 도전 덕분에 그리스도교 생태 신학이 등장했고, 생태 신학자들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교 생태 영성을 밖으로 끌어내서 맛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위기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교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생태 신학이 등장했듯이, 다양한 생태론 논의와 생태 운동이 등장했다.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여성생태론과 영성생태론, 녹색정치와 지속 가능성 운동 등이 나타났다. 이들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파악했고, 그 대안도 달랐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환경철학 분야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생태론 논의를 베리의 글에서 조금씩 볼 수 있다. 베리의 생태론은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여성생태론과 영성생태론을 넘어선 **통합생태론**이다.

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 요약

1970년대부터 베리는 다양한 **생태계 위기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예리하고 빠르게 이해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베리의 경고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베리의 선견지명에 놀라워하고 있다. 베리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인정했고,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위한 서식지 복구도 요청했다. 또한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를 선택했다. 베리의 지구 공동체라는 이 비전은 다른 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생태 운동에 제공했다. 과정신학자 **존 캅(J. Cobb)**은 베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생태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생태 운동가 중 그 누구도, 베리 만큼 급진적인 독창성을 현실화하는 데 비슷한 효과도 보지 못했다." 과학철학자이자 통합이론가인 **어빈 라즐로(Ervin Laszlo)** 역시 "그 누구도 베리보다 우리 문제의 본질과 원인과 해결 방법을 더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생태계 문제들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다고 했다. 베리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른 학자들과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독특하다. 베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태계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다. 지구학자로서 베리는 **'행성 지구 전체의 건강'**에 관심이 있고, 생태계 위기를 한마디로 살아있는 **'지구의 죽음'**이라고 정리한다. 모든 생명의 바탕인 지구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다. 지구 차원에서, 지구의 구조와 기능과 성질이 이렇게까지 파괴된 일은, 46억 년 지구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베리는 지구의 이런 변화를 '단순한 또 하나의 역사의 전환기나 문명의 전환기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학적인 전환기'라고 표현한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존재 양식**과 관계가 있는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친밀함과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베리는 인간이 자연 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자연과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생태계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감수성 결핍**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인간에게 **비전을 제공해 주는 우주 이야기(우주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생태계 위기는 인간-지구 관계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결여 때문에 야기된 것이므로, 신-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과 자연 세계에 나타난 계시 체험, 즉 우주의 신성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베리는 더 들어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과학과 역사와 종교**라는 맥락에서 찾았다.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환경 문제의 뿌리에는 대부분 이런 세 가지 원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원인은 **과학기술이 만든 산업 문명의 진보(progress)라는 신화**이다. 산업 문명은 경이로운 세계(wonderworld)를 만들기 위해 진보라는 환상을 좇아 달려왔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쓰레기 세계(wasteworld)이다. 두 번째 원인은 **인간-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인간 역사**이다. 인간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생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중심주의**와 공격과 약탈을 일삼는 남성 지배적인 **가부장제**에 의해, 인간 문명은 점차 악화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지구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이다. 우리 인간이 지구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예의, 감사하는 마음, 성스러움을 인정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다.

생태계 **위기의 종교적인 특성**에 대한 베리의 통찰은 정말 놀랍다. 베리는 급증하는 생태계 위기에 종교가 왜 지구의 운명에 눈을 감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특히 **종교**에 도전했다. 베리는 종교가 전통적 세계관에서 현대적 세계관으로 **탈출(Exodus)**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대부분 종교는 현대로의 전이(transition)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종종 **근본주의(fundamentalism)**로 되돌아가고 있다.

베리의 대안은 **생태대(Ecozoic era)**로의 도약이다. 생태대는 베리가 만든 신조어이다. 지질학에서 지구의 역사 시대 현생대(Phanerozoic Eon)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Cenozoic era)로 분류하는 과학 전통에 근거해서, 베리가 제안하는, 신생대

다음에 지구에 나타나야 할 지질학적 시기이다. 생태대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교**를 바탕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치유하는 시기'이다. 지금 인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 하나는 **기술대(Technozoic era)**고, 다른 하나는 **생태대**이다. 베리의 선택은 생태대이다. 지금 기술대로 이끄는 힘이 너무 강력하지만, 지구 공동체가 생존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면 생태대로 도약해야 한다고 베리는 주장한다. 생태대는 인간이 지구와 상호증진(mutually enhancing) 하는 양식으로, 지구에서 존재하는 시대를 말한다.

베리는 생태대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생태지역주의(Bio-regionalism)**와 **생태영성(Eco-spirituality)과 새로운 우주론(New Cosmology)**을 제안한다. 그런데 생태지역주의는 환경철학에서, 생태영성은 생태신학에서 다른 많은 학자가 논의하고 있으므로 베리의 생태사상 하면 우리는 보통 새로운 우주론을 이야기한다.

생태지역주의는 인간이 자신이 사는 생태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맞춰 조화롭게 거주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가 피터 버그(Peter Berg)와 생태학자 레이먼드 다스먼(Raymond Dasmann)이 생태지리학적 개념인 생태지역*에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땅의 윤리(The Ethics of Land)'를 적용해서 확대한 주장으로, 기본 원리는 생태 지역과 실천적인 '땅의 윤리'와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정리할 수 있다. 베리의 생태지역주의는 생명공동체 이론이다. 베리는 "지구는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자양분을 충족시키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통치하며,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실현하는 공동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인간중심적 규범을 생명중심적 규범으로 변화시키고, 생명공동체 내의 다른 존재들과의 친밀함을 통해 생태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베리의 생태 영성은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일치의 체현이며, 내재 초월적 분화와 친교를 통해 구현되는 주체들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베리는 인간에게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우주 공동체 구성원의 전일적인 사랑과 생명 나눔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베리는 그리스도교 생태 영성 모델로 켈트의 물활론적 영성, 베네딕트의 청지기 영성, 프란치스코의 형제애 영성, 힐데가르트의 풍요영성, 떼이야르 드 샤르댕의 통합 영성을 제안했다.

* 생태지역(bioregion)은 다양한 생물종 분포, 분수령의 지계, 토양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생태지리학적 개념이다.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

토마스 베리는 생태대라는 매혹 있는 미래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도구로 선택한 것이 우주 이야기이다. 인간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공포'**고 다른 하나는 **'매혹'**이다. 생태계 위기 극복도 마찬가지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공포를 겪으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생태대라는 매혹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보여줌으로써 생태대로 움직이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거다. 우주 이야기는 생태대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지구에 대한 매혹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지구를 파괴하려는 인간 행위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리는 **생태대(Ecozoic Era)*** 실현을 위한 신화로 **『우주 이야기』**를 제안했다.

'우주 이야기'는 우주와 우주 안에서 인간 위치와 인간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어떻게 현존하는 실체들이 창조됐는지, 어떻게 인간이 거대한 우주 안에 나타나게 됐는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주 이야기는 설명한다. 베리의 '우주 이야기'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새로운 우주론이다. 베리는 과학적 우주론과 종교적 우주론을 통합한 새로운 우주론을 문화적(역사적) 이야기 형태로 제안한다.

사실 베리는 생태계 위기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현대 세계에 필요한 것은 미래의 신화로 다뤄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믿었다. "우주 이야기가 더 이상 그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생동감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베리는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주 이야기에는 그 사회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가치들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위기도 "건전한 우주 이야기를 갖지 못해 봉착한 난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우주의 출현과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는 '우주 이야기'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주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의 상호연결성을 촉구하기 위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료로서 **이야기 형태의 새로운 우주론이다.** 처음에 베리는 『지구의 꿈』에 실린 「새로운 이야기(The New Story)」**를 통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는 파괴적인 힘에 맞서기

* 생태대 또한 베리가 만든 새로운 신조어다. 생태대는 지질학적인 지구의 역사 시대인 현생대(Phanerozoic Eon)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Cenozoic era)로 분류하는 과학 전통에 근거해서, 베리가 제안하는 신생대 다음에 지구에 나타나야 할 지질학적 시기다. 생태대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교를 바탕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치유하는 시기'다.

** 지구의 꿈에 실린 '새로운 이야기'는 베리 평생에 걸친 성찰의 정점으로 간주된다. 이 글은 1992년 브라이언 스윔과 베리가 10년간의 공동 작업 끝에 출판한 '우주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베리 사후, 진화의 서사시를 새롭게 서술할 필요성을 느낀 스윔과 터커가 함께 작업해서 쓴 책과 영화 '우주의 여정(Journey of the Universe, 2011)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 과학자, 역사가, 교육자와 환경주의자들과의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했다. 베리는 '새로운 이야기'만이 자연을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으로 객체화시킨 **물질주의(materialism)와 환원주의(reductionism)**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대 과학과 종교를 창조적으로 통합시킬 일관된 **진화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베리는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간이 우주의 진화과정을 통해 등장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우주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리는 **우주와 지구**를 연결시켜, **생물 종(種)으로서의 인간 위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게 하는 **우주 진화 서사시**에 관심이 있었다. 우주를 펼쳐지는 교향곡으로 지구를 살아있는 행성으로 인식해야만, 우주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에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우리 **인간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도 있었다. 베리는 우리 인간이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엄청난 다양성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지구 생태계 생명체들과 더욱 완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82년, 베리는 1년간 연구를 위해 리버데일 센터로 온 브라이언 스윔을 처음 만났다. 수리천문학 박사인 스윔은 베리의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그후 10년 동안 베리는 연구와 강의와 콘퍼런스 등 협업을 통해 자신의 세계사 연구와 종교 연구를 스윔의 우주 진화 연구와 통합시켰다. 이로써 두 사람이 공저한 『**우주 이야기(The Universe Story)**』가 세상에 나왔다. 우주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소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주 이야기 요약

스윔과 베리는 『우주 이야기』 서문에서, 현재 알려진 138억 년간의 우주의 진화과정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이해를 하도록 우리를 도우려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결여"**하고 있으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적 관점의 통합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교육 체제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적 관점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우주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인간을 지구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해하는 **"왜곡된 형태"**의 **인간 이해**를 하게 되었다. 실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과학 자료들은,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역할**이 **"지구와 우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담고 있는**

일련의 인터뷰와 함께 우주 이야기가 책과 함께 영화로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터커는 '우주의 여정'은 진화와 생태와 영성에 관한 베리의 사상에 빚지고 있다고 했다.

깊은 신비에 대해 의식적인 자기-각성(conscious self-awareness)의 특별한 형태로 돌이켜 숙고해 보고 경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임을 실제로 지적한다. 더욱이 그 자료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심오한 완성 형태인 것으로 흔히 관련짓고 있는 빼어난 경축의 작품들"** 즉 시와 음악과 미술 등은 사실 우리 인간의 독특한 우월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계와의 친밀한 친교**라고 이야기한다. 베리와 스윔은 전체 지구 공동체의 미래는 인류가 지구의 생명 체제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의 귀결로서 인간이 내리는 결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주는 물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 이런 과학 자료들을 결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스윔과 베리는 **"변형의 연속과정을 따라가며 우주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우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생명체와 비 생명체 구성요소에 대한 친족 의식"**을 얻고,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민감성을 일깨우게 되는데"** 도움이 되어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인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게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우주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네 단계로 설명된다. 1장~4장은 태초의 폭발(빅뱅)로 인해 물질이 형성되고, 이 물질이 후에 조직화하고 진화하여 은하계와 은하계를 구성하는 별, 그리고 행성이 되기까지를 설명한다. 5장~8장에서는 지구가 **"화학적 자궁"**으로 진화되어,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발전하여 인간이 등장하기까지를 설명한다. 9~12장은 인간 공동체 발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한다. 13장과 에필로그는 결론 부분으로, 다가올 미래에 인류가 내리는 결정이 전체 지구 공동체가 **"기술대(Technozoic era)"***로 갈 것인지, 혹은 **"생태대(Ecozoic)"****로 갈 것인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논의한다.

1~4장은 태초의 폭발(빅뱅)에서 물질이 형성되고, 자기-조직화며 진화함으로써 등장한 은하계와 은하계를 구성하는 별, 그리고 행성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1장. 태초의 찬란한 불꽃의 추진력(Primordial Flaring Forth)은 태초의 근원적인 힘이 138억 년 전 거대한 불꽃의 폭발(flaring forth)로 우주를 시작하게 했다고 시작한다. **대폭발(Big Bang)**의 불꽃은 (**방향성**을 지닌) 의미가 있는 불꽃이며, 우주의 활동은 **중력 작용, 강한 핵 작용, 약한 핵 작용 및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전개되었다. 백만 분의

* 기술대는 지구와 지구 자원에 대한 상업적-산업적 통제가 세상이 객체들의 집합체인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루게 되는 시대다.

** 생태대는 지구가 주체들의 밀접한 친교집단인 것으로 보고, 전체 지구 공동체의 공동선은 인간의 결정과 지구 자원 사용에 대한 척도가 되는 시대다.

일 초가 지나기 전 요동하던 입자들은 안정화되었고, 최초의 몇 분 내에 최초의 **핵**이 형성되었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은하계의 씨인 **수소와 헬륨**이 출현했다. 스윔과 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하나다. 우주 안에서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작용이며, **존재 형태**다. 물질의 존재는 그 물리적 위치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장은 은하계(Galaxies) 이야기이다. 100~140억 년 전, 우주는 은하 구름으로 분해되었고, 최초의 별이 등장했고, 최초의 원소는 그 별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스윔과 베리는 우주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즉 **실존 형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한다. 서로를 불러일으키는 우주 실재들의 **역학**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특성을 '다(多)차원'이라 이야기한다.

3장은 초신성(Supernovas) 이야기이다. 우주의 **역학** 안에 어떻게 **폭력과 파괴**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초신성을 예로 들어, 우주적 규모에서 폭력과 파괴가 어떻게 우주 작용의 일부가 되었는지 설명한다. 최초의 초신성은 2세대 및 3세대 별들을 불러일으켰고, **별들의 핵융합이 일어났다.** 거대한 은하계는 더욱 작은 은하를 삼킴으로써 진화했다. 왜 폭력과 파괴가 존재하는가? 스윔과 베리는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원인은 물질의 **저항으로,** 그 예로써 파울리의 배타원리를 이야기한다. 둘 원인은 창조의 비용인 **에너지**(열역학 제2법칙)이고, 셋째 원인은 자신의 내적 특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인 꿈(물리학의 양자적 경향성, 자기-조직)이라고 정리한다.

4장은 태양(Sun) 이야기이다. 태양을 모델로 과정으로서의 **우주 생성**을 이야기한다. 46억 년 전, 우리 나선형 은하 안의 **티아마트 별**의 초신성 폭발은 태양을 낳고 행성을 만들었다. 탄생한 지구는 대기와 대양과 대륙을 낳았다. 반면에 달과 수성의 지질학적 활동은 동결했고,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도 동결했다. 스윔과 베리는 세 가지 근본 역학(우주 생성 원리), 즉 **분화와 자기조직과 친교**의 맥락에서 토론한다. 우주의 진화는 분화에 의해 질서 지워지고, 자기-조직에 의해 구조화되며, 친교에 따라 조직화된다.

5~8장은 지구가 '화학적 자궁'으로 진화되어, 그곳에서 생명이 창발하고 지구상 생명의 발전과 인간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5장은 살아있는 지구(Living Earth) 이야기로, 시생대(Archean Eon)의 지구 탄생과 생명 출현을 설명한다. 지구 탄생 후, 40억 년 전. 최초의 원핵세포 **아리에스(Aries)**가

출현했다. 아리에스는 **자기-조직, 정보 기억,** 빛 에너지(광양자)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39억 년 전. **광합성(photosynthesis) 능력을 가진 원핵세포 프로메티오(Promethio) 출현했다. 광합성에 의해** 산소화된 지구에서 원핵세포들은 산소화된 대기에서 스스로 연소되어 소멸되었다. 25억 년 전, 대륙은 안정화되었다.

6장은 진핵생물(Eukaryotes) 이야기로, 원생대(Proterozoic Eon) 이야기이다. 우주 생성 과정을 진핵생물의 진화를 이용해 설명한다. 20억 년 전. 산소 처리 방법을 터득한 시아노박테리아 **프로스페로(Prospero)**가 등장했고, 최초의 진핵세포 **바이켕글라(Vikengla)**가 출현했다. 스윔과 베리는 이 **생물체 내부공생(endo-symbiosis)**으로 유해한 산소를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바이켕글라의 창조성이 분출했다고 이야기한다.! 10억 년 전. 종속영양을 발견한 **크로노스(Kronos)**가 등장하면서, 생물체 외부공생(exo-symbiosis)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먹는 습관이 창조되었다(먹이사슬: 포식-피식 관계). 그리고 감수분열에 의한 유성생식을 창조한 **사포(Sappho)**는**생식 유전 공생(sexual-genetic symbiosis)**으로 생식을 통한 다양성을 확대시켰고, 성적 결합에 의한 친교뿐만 아니라 포식자-피식자라는 생태학적 관계에 의한 친교도 심화시켰다. 7억 년 전. 최초의 다세포 생물 **아르고스(Argos)**의 등장으로 **다세포공생(multicellular symbiosis)**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6억 년 전, **중간우주(Mesocosm)**가 탄생했지만, 5억7천만 년 전, **켐브리안 멸종을 통해** 80~90%의 생물 종이 다 사라졌다. 스윔과 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산소화된 가이아 체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진핵세포는 지구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이지만, 생명 그 자체의 출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가려져 있다. 산소야말로 창조적인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그 장애물이다."

7장은 식물과 동물(Plants and Animals) 이야기, 현생대(Phaneroozoic Eon) 이야기이다. 우주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현생대의 세 단계, 즉 고생대(Paleozoic era), 중생대(Mesozoic era)와 신생대(Cenozoic era)를 거치면서 지구상 식물과 동물의 진화를 시대별로 다룬다. 고생대(Paleozoic era)는 5억7천만 년 전 ~ 2억 4천 5백만 년 전까지로, 이 시기에 단단한 껍질과 해조류의 목질세포(wood cell)가 창안되어 겉씨식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첩기-삼첩기 사이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 중생대(Mesozoic era)는 2억4천5백만 년 전 ~ 6천7백만 년 전까지다. 중생대 창조물은 유양막이 있는 알과 온혈로서 공룡류와 조류를 탄생시켰고, 부모의 돌봄이 나타났다. 2억 년 전, 포유동물이 지구생명체로 등장했고, **신경계 안에**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즉 정서적 감각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화식물(꽃)이 등장했다. 6천7백만 년 전, 백악기 멸종(이유 : 행성 충돌)이 일어났다. 지구의 환경, 기온의 결정적 변화로 대부분의 지구 생물이 **멸종**했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후 신생대(Cenozoic era)는 6천7백만 년 전 ~ 현재까지다.

스윔과 베리는 우주에서 생명을 형성하는 역학, 즉 **변이, 자연선택, 적소 창조를 분화, 자기조직, 친교**라는 우주생성 원리로 설명한다. "생명을 형성시킨 것은 무엇인가? 유전변이(genetic mutation),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의식적인 선택(conscious choice) 혹은 적소창조(niche creation)가 그것이다."

8장은 인간 출현(Human Emergence)이다. 구석기(The Paleolithic), 최초의 인간 출현부터 등장한 인간을 연대기 순으로 설명한다. 신경계에 관련된 또 다른 능력, 즉 **의식적인 자기 각성은 인간을 등장시켰다.** 4백만 년 전, 두 다리로 직립하는 인간이 등장했다. 2백육십만 년 전: 최초의 인간,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는 석기(손을 사용, 도구를 쓰는 인간)를, 1백5십만 년 전 직립원인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은 사냥(불을 사용), 의복, 은신처, 손도끼를 사용했다. 2십만 년 전, 고대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1십만 년 전부터 의식 있는 매장을 행했다. 4만 년 전, 근대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만 8천 년 전부터 동굴 벽화와 축제와 음악을 행했다. 1만 2천 년 전: 식물 경작과 동물 가축화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인구가 증가했다. 원시 부족의 우주 의식과 의례는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우주(자연)의 성스러움을 인정하고 경외심으로 노래하고 춤추기였다. 이것은 나바호 인디언의 모래그림과 창조신화와 위대한 어머니(모계중심), 만다라, 우주 나무로 나타난다.

9~12 장은 인간 공동체 발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이다.

9장은 신석기 촌락(Neolithic Village)은 식물 경작과 동물의 가축화에 기초한 신석기 촌락에 대해 설명한다. 동물의 가축화와 농경으로 **자연 착취가 시작되었고,** 인간종과 자연 세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기초적인 우주론은 여성으로서의 하느님 이해(모성적 원리: 도교 전통)였다. 언어는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심오한 방식이었고, 인간이라는 종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신석기 정착촌락지로서 **수메르, 크레타, 켈트, 미케네** 문명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은 도시 문명 이후에도 지속했다. 이것이 신석기 농업촌락의 힘이다. 3천5백 년 전: 전 세계 인구는 500만~1,000만이었다. 인간의 미적 감수성과 예술적인 능력이 "우주론적 질서의 자연스러운 리듬 안에 있는 인간의 깊은 내면과

결합"되었다. 다양한 종족들은 기본적인 언어로 자신들끼리 그리고 미래세대와 더욱 깊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와 우주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전통들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문화양식과 종교 양식, 그리고 계급사회(가부장제)가 나타났다.

10장은 고전 문명(Classical Civilizations) 이야기는 기원전 3500~기원후 1500년의 고전문명을 다룬다. 지구는 이제 5천 년에 걸친 고대문명 발생기로 진입한다. 5천 년 전 도시 문명은 사회관계, 관료체계, 상업체계, 초월에 대한 감각과 종교를 발전시켰다. 기원전 3000년경 여성 신에서 남성 신의 지배로 변화되면서, 제사장-왕(Priest-King)이 등장했다. 이스라엘은 "신을 우주적 현상보다 역사적 사건에서 지각했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후 그리스 철학과 로마법과 이방인들의 에너지와 결합되어 유럽의 힘을 하나로 묶었다. 이것이 지구의 생존과 인간 역사의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비애감과 현상세계를 보는 태도는 축의 시대에 다양한 종교와 영성을 낳았다. 인간-자연의 친밀한 관계를 전하는 가르침들은 자비(compassion)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서구 영성 전통은 인간중심주의와 신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지구-인간 유대관계를 약화시켰고, 자연에 대한 무시는 가부장제와 노예제도로 나타났다. 그 결과, 1500년에 이르러 확장하던 다양한 문명이 인간 지배에 대한 지구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5천 년 동안의 '다양한 고전 문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즉 농업적 기초, 종교적 의례, 우주의 시간 원리가 녹아 있는 의례와 관련된 통합적 통치, 거대한 건축물들, 직조기술, 토기 제작기술, 사건을 기록하는 일반화된 체계, 문학적 창조성 등이다.

11장은 국가의 번성(Rise of Nations) 이야기이다. 16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있는 국가의 등장을 연대별로 설명한다. 16세기 주요 문명의 강압적인 가부장제는 유럽 인구가 세계로 이동하면서, 북미대륙과 호주를 식민지화했고, 인도, 일본, 중국 등을 강제 편입시켰다. 이렇게 전 지구적 인간 공동운명체가 형성되었고, 기술문명과 과학과 산업사회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국가와 자치정부의 내적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개인과 공동체를 보는 동서양의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국가의 신성한 이상: 민주주의, 진보, 민주적 자유, 개인의 사유재산, 경제적 소득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영토, 교육, 전쟁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지배적인 실체는 국민국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며, 산업적 약탈에 의한 자연계 파괴는 신생대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우리에게 작동하는 신화의 재검토와 새로운 우주

이야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12장은 현대의 계시(The Modern Revelation)이다. 스윔과 베리는 과학을 "현대의 계시"라고 표현한다. 과학의 계시 체험 덕택에 우주가 돌이킬 수 없는 변천의 연속을 통해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우주가 복잡화되면서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진화는 '시간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이다. 과학기술 시대, 산업사회의 '진보' 신화,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은 성경의 천년왕국이라는 기대에서 온 것이다. 현대기업들의 지휘 아래 과학기술로 천년왕국으로 나아간다는 왜곡된 꿈이 문제이다. 생물종의 멸종과 뉴턴의 중력과 감정적 끌림, 그리고 다윈이 말한 그물처럼 연결된 생명 존재의 유전적 통일성과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관련(상대성이론)이 있다는 과학의 통찰을 나열한다.

나가기: 13장과 에필로그는 우주 이야기가 "현재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 주고 미래를 위한 인도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신비적 비전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주 그 자체는 과학적인 측면은 물론 신비적인 측면의 이야기로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객체들을 다룬다. 이야기는 주체들을 다룬다. 모든 형태의 존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형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 중 하나가 결여되면 그 어느 것도 완전해질 수 없다." 결국 인류가 내리는 결정으로 지구 공동체가 기술대로 갈지 생태대로 갈지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13장. 생태대(Ecozoic Era)를 이야기한다. 현재는 인간이 아동기(신생대)에서 성인기(생태대)로 넘어가기 위해 성인식을 치르는 시기이다. 인간중심에서 생물 중심, 지구-우주 중심으로 가는 새로운 우주이야기(신화)가 필요하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맘대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스윔과 베리는 **우주적 사회주의**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끌어온다. "하느님의 선하심은 어떤 하나의 피조물로는 적절히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수히 다양한 피조물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 하나의 피조물보다는 전체 우주가 함께해야 하느님의 선하심에 보다 완전히 참여할 수 있고, 잘 드러낼 수 있다." 이제 138억 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되어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존재들, 특히 지구의 미래는 인간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있다...새로운 시대(ecozoic era)

에필로그: 경축

이렇게 우리는 우주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2022 지리산 둘레길 마을주민 아카데미

발행인 | 사단법인숲길

발행일 | 2022.03.01

발행처 | (주) 제이알컴

디자인 | 임산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자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